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 제주 방언의 친척 명칭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박 민 경

2015년 8월

# 제주 방언의 친척 명칭 연구

지도교수 김 태 곤

박 민 경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5년 6월

박민경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15년 6월

# 목 차

<b>1. 서론</b> .....	<b>1</b>
1.1. 연구 목적 .....	1
1.2. 선행 연구 .....	3
1.3. 연구 방법과 범위 .....	5
<b>2. 제주 방언의 친척 명칭 체계와 분류</b> .....	<b>7</b>
2.1. 直系 .....	9
2.1.1. 부계혈족 .....	9
2.1.2. 모계혈족 .....	14
2.2. 傍系 .....	15
2.2.1. 형제 .....	19
2.2.2. 방계존속 .....	21
2.2.3. 방계비속 .....	22
2.3. 姻戚 .....	24
2.3.1. 시가 .....	24
2.3.2. 처가 .....	27
<b>3. 분류에 따른 국어학적 고찰</b> .....	<b>31</b>
3.1. 直系 관련 명칭 .....	31
3.2. 傍系 관련 명칭 .....	40
3.3. 姻戚 관련 명칭 .....	56
<b>4. 결론</b> .....	<b>59</b>
<참고문헌> .....	63
<Abstract> .....	66

## 표 목 차

<표 1> 제보자 정보 및 조사일 .....	5
<표 2> 父系血族 관련 친척 명칭 .....	10
<표 3> 母系血族 관련 친척 명칭 .....	14
<표 4> 傍系血族 관련 친척 명칭 .....	16
<표 5> 媿家 관련 친척 명칭 .....	24
<표 6> 妻家 관련 친척 명칭 .....	27
<표 7> 시대별 祖父 관련 어휘 .....	37
<표 8> ‘아주방’ 관련 표준어와 제주방언의 사전적 정의 .....	45
<표 9> ‘아주망’ 관련 표준어와 제주방언의 사전적 정의 .....	48
<부록> 제주 방언의 친척 명칭 관련 설문지	

<국문초록>

## 제주 방언의 친척 명칭 연구

박 민 경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지도교수 김 태 곤

이 연구는 제주 가족 조직에서 나타난 제주 방언의 친척 명칭들을 종합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가족 구성에 따라 ‘직계혈족’(直系血族), ‘방계혈족’(傍系血族), ‘인척’(姻戚)의 유형으로 나누어 분류하였다. 또한 분류한 제주 방언의 친척 명칭 중 古語의 모습이 남아 있는 개별 어휘들을 찾아 조어론적·의미론적으로 분석하였다.

어휘의 분류 과정에서 나타난 제주 친척 명칭의 대표적 어휘인 ‘삼촌’, ‘아시’, ‘성님’ 등을 통해 부계적(父系的) 원리가 기본인 친척 명칭의 구조와 달리 제주에서는 부계원리만 강조되지 않는 사회·문화적 영향을 찾을 수 있었다. 제주 방언 ‘삼촌’, ‘아시’, ‘성님’이 표준어에 대응되는 ‘삼촌’, ‘아우’, ‘형님’과 같이 남성을 대표하는 친척 명칭임에도 불구하고 모계혈족을 포함한 가계(家系)의 제약 없이 친척 여성에게도 흔히 사용되어 성별에 제약을 받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이 뿐 아니라 조사 과정에서 친척 명칭 중 일부는 의미 기능의 확대로 친척의 범위를 넘어 일반인 범위까지 사용이 가능한 어휘들이 많았다. 물론 표준어의 ‘할아버지’, ‘할머니’, ‘아주머니’, ‘삼촌’, ‘형’ 등이 동일하게 일반 어휘로 존재하지만 제주방언 ‘삼촌’이나 ‘성님’ 그리고 ‘아시’가 여성 사이에서도 활발히 쓰인다는 점이 독특하다.

이러한 친척 어휘의 의미 사용 범위가 확대될 뿐 아니라 친척 명칭에서는 아랫 사람이 손윗 사람에 대해 지칭으로 평칭 사용이 빈번함을 찾을 수 있었다. 본래 화자보다 향렬이 높음에도 평칭 ‘아주망(아지망)’, ‘아주방(아지방)’, ‘삼촌’, ‘오라방’ 등이

지칭으로 흔히 사용되고 있었다.

이렇게 성별과 향렬의 제한을 많이 받지 않음으로 제주 방언의 친척 명칭은 각각 다른 가계(家系)의 대상이라 할지라도 중복되어 쓰이는 어휘들이 많았다. 예를 들면 방계혈족의 지칭으로 여성 화자가 남성 친척에게 사용하는 ‘아주방(아지방)’이 인척의 시가(媿家)에서 남편의 형제에게 동일하게 쓰이는 것을 알 수 있다. 표준어에서는 언어예절로 격식을 차리는 ‘도련님’, ‘아주버님’과 달리 제주 방언은 이름이나 비칭으로 가리키는 것이다. 이는 제주라는 한 지역 내에 시가나 처가 등 가족 조직이 함께 거주하는 형태가 많은 지리적 배경으로 화자와 친척 간에 친소 관계(親疎關係)가 가까워 가계(家系) 구분 없이 편하게 사용되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으로 여러 가족 구성에서 중복되는 어휘들은 누구를 부르고 가리키는 지에 대한 혼란을 피하기 위해 제주 사람들은 ‘하귀 성님’, ‘명희 삼춘’과 같이 주로 명칭 앞에 ‘택호명’이나 ‘이름’ 등을 넣어 대화의 불편함이 없도록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제주 방언의 친척 명칭은 의미 사용에 있어 제약이 크지 않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 뿐 아니라 어휘의 형태면에서도 친척 어휘들의 다수가 중세 국어의 모습이 지금까지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어학적 가치가 뛰어나다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표준어 사용이 확대되어 가는 시기에 제주 방언이 사라지기 전에 채록하고 학술적으로 국어학적 가치를 알릴 필요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 연구는 제주에서 실생활에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친척 명칭들을 통해 제주 방언의 어휘적 특징을 밝힐 뿐 아니라 보존 가치를 강조하고자 하였다.

# I. 서론

## 1.1. 연구 목적

오늘날 제주는 현재 외지 사람들의 왕래와 정착이 과거에 비해 상당수 늘어나서 방언의 사용이 급격히 줄어들게 되었다. 이는 제주 방언이 표준어나 타지 방언들에 비해 구사하거나 알아듣기에 어려운 부분들이 많고, 방언의 사용 인식이 현저히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또한 표준어가 지배언어로 정착된 젊은 세대가 부모(父母), 조부모(祖父母)와의 소통의 기회가 적어진 요인도 작용한다. 이러한 요인과 더불어 제주에는 제주 방언을 전승할 세대들이 적극적으로 방언을 보존하려는 인식이 부족한 상황에 놓여 있다. 따라서 제주 지역 사람들의 방언 사용의 실태를 확인하고 제주 방언의 의미와 가치를 다양한 방법으로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제주 방언 중 친척 관련 어휘들을 종합적으로 수집하고, 체계적인 분류를 통해 어휘적 특성을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그동안 기존 논의된 제주 방언 연구 중 아직 미비한 친척 명칭과 관련한 연구를 표준 화법과 비교하여 제주 방언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을 밝히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연구는 제주의 가족 사회 속에 나타난 생활언어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주 방언의 고유한 가치를 인식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이 논문에서 제주 방언의 친척 관련 명칭에 주목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제주는 생태학적 특성으로 고유문화가 보존될 가능성이 높은 섬이라는 점에서 유지와는 다른 독특한 방언권을 보여 준다. 역사적으로 조선 시대 인조 7년(1629)부터 약 200년간 ‘출륙금지령(出陸禁止令)’ 시행으로 제주도 사람들은 다른 지역의 문화를 배울 기회가 흔치 않았다. 즉, 교류 단절로 인해 다른 지역과 언어 소통이 거의 없었으므로 제주 방언은 타지 방언들에 비해 특수한 독자성을 유지해 왔으며 소중한 고유어들이 남아 있어, 국어 연구에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러한 고유어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언어생활에서 가장 기초적이고 필수적 용어인 친척 명칭이다. 이 연구는 친척 명칭들의 새로운 의미를 찾기보다 제주 지역의 친척 어휘들을 집대성(集大成) 하는 것이 필요함을 인식하여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또한 제주에는 촌락 형성으로 구성되어 있어 ‘집안’과 ‘친척’의 의미를 뜻하는 제주 방언 즉 ‘켄당 문화’를 가지고 있다. ‘켄당’은 혈통으로 연결된 부계 혈족뿐 아니라 혼인으로 연결된 모든 인척을 포함한다. 제주만이 가지고 있는 켄당 문화는 제주 친척 조직에서 특히 촌락내혼(村落內婚)의 혼인망으로 같은 마을이나 이웃 마을에 혈족과 인척이 중첩되게 되면서 친척 간의 유대강화를 보인다. 제주의 특수한 친척 구성 배경은 제주 방언의 친척 어휘가 육지 방언에 비해 친척 호칭들을 다양하게 생성하게 했다. 육지의 경우 외가나 처가가 같은 촌락에 있지 않을 경우 직접 호칭할 기회는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반면 제주에는 촌락내혼(村落內婚)에 기반을 두어 독특한 친척 명칭들이 발달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제주의 풍토를 바탕으로 제주의 문화적·사회적 가치를 존중하고 점차 사라져 가는 제주 방언 속 어휘들을 수집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지금까지 산발적으로 이루어진 제주 친척 관련 어휘들을 표준어와 비교하여 목록으로 체계화시키고, 개별 어휘들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제주도 방언의 광범위한 친척 어휘들을 ‘直系’, ‘傍系’, ‘姻戚’ 친척 유형으로 나누어 제시하되 제주 방언의 독자성을 밝히기 위해 표준화법의 친척 명칭과 비교하고자 한다. 분류를 통해 친척 명칭에서 나타난 개별 어휘들의 어학적 특징을 찾기 위해 통시적인 관점에서 어휘의 형태와 의미를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개별 친척 명칭에 대한 분석을 통해 다른 지역에서 찾기 어려운, 제주 방언만이 가지는 언어학적 가치를 밝히고자 한다.

## 1.2. 선행 연구

기초 어휘라 할 수 있는 친척 명칭은 한국의 사회가 어떠한 문화적 배경과 사회적 특성을 지니느냐에 따라 각기 다른 특성을 나타낸다. 우리나라는 혈연 의식이 강한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친척 간의 위계를 중시하여 이를 확립하는 데 필요한 친척 명칭들이 많이 발달 되어 있다. 이에 친척 관련 명칭 연구는 국어학적 연구와 함께 민속학적 연구나 문화 인류학적 연구에서도 함께 다루어져 왔다.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로 어휘 연구 중 친척과 관련된 연구로서 사회·문화적 배경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특히 제주 가족 구조 및 친척 관계에 관련하여 문화인류학적 관점으로 살펴본 논의는 최재석(1979), 김혜숙(1999) 등이 있다.

최재석(1979)은 제주도의 가족 조직과 그 호칭 체계를 다루면서 제주의 촌락 구성이 가족 호칭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고 있으며, 김혜숙(1999)은 1980년대 이후 제주도의 켄당 문화의 특성들을 논의하면서 제주 사회의 혼인망 형성을 통해 제주의 다양한 친척용어가 나타남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사회인류학 관점으로 논의된 것이므로 한국 사회에서 나타난 친척 조직을 통해 시대적 가족 현상의 변화나 가족 제도의 특성을 소개하면서 친척 용어들을 일부 다룬 것일 뿐 구체적인 친척 명칭에 대한 논의는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반면 국어 친척 어휘를 중심으로 다룬 연구로는 강신항(1976), 조항범(1996), 이기영(2001), 김승화(2010), 김재선(2012), 김미정(2010) 등이 있다.

강신항(1976)은 경북 안동·봉화·영해 지역의 방언권을 중심으로 언어 분화 현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세 마을의 언어 차이를 조사하여 지역마다 독특하게 나타나는 언어생활의 일면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주로 지역별 친척 관련 어휘의 차이점을 분명히 드러내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조항범(1996)은 대표적 친척 어휘를 통시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친척 어휘를 어휘사의 관점에서 정밀히 추적하고, 어휘의 변모 과정을 체계적으로 기술하는 데에 확연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기영(2001)은 강화 지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친척 호칭 및 지칭 어휘들을 조사하여 그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친척어의 변천 과정과 실제 양상을 제시하였다. 조사 분

류에서 男女·世代別로 나누어 제시하여 가족제도와 사회 변화로 친척 호칭이 빠르게 변화됨을 강조하였다.

김승화(2010)는 인지 의미론적 관점에서 친척 호칭, 그중 여성 호칭 ‘언니’, ‘누나’와 남성 호칭 ‘오빠’, ‘형’의 의미를 중심으로 친척 호칭의 의미를 체계화하였다. 개별 친척 호칭의 원형 의미에서 의미 확대 양상을 제시하여, 하나의 호칭이 갖는 여러 의미의 연관성을 밝힘으로써 친척 호칭의 의미 확장을 규명하였다.

김재선(2012)은 여자 칭자를 대상으로 하는 ‘아줌마’, ‘아주머니’, ‘이모’, ‘언니’, ‘아가씨’를 중심으로 비친족에게 사용되는 친족 호칭의 화용적 쓰임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는 기본 친척 호칭보다는 친척 호칭의 확대 사용의 의미 화용적 특성을 더 중점으로 다루었다고 할 수 있다.

제주 방언과 관련된 친척 어휘 연구로는 김미정(2010)을 들 수 있다. 이 연구는 제주 지역의 친족 어휘를 개별적으로 나열하여 기능과 등급을 기술하였다. 이 논의가 기존에 미미했던 제주 방언의 친족 어휘를 다룬 연구라는 점에서 본 연구와 공통된 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다룬 친척의 범위는 직계혈족(直系血族)을 중심으로 기본 가족 구성원에 한정 하고 있으며, 어휘 사용 양상을 중심으로 되어 있어 통시적 관점에서 친족 어휘의 어원을 살펴본 연구라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연구 범위에서 친척 범위는 물론이며 논의 중점부터 본 연구와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친척 관련 연구는 크게 어휘사적 연구로는 표준어로 공통되는 가족 명칭이나 비친척 호칭을 분석하였고, 방언학 관련 연구로는 다른 지역의 친척 어휘 사용 양상을 살펴보는 연구 등으로 이루어져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친척 어휘의 의미와 형태를 분석하기보다는 한 지역을 중심으로 방언 사용 실태를 분석한 결과에 집중한 것이 많았다.

종합하면 그동안 친척 명칭에 관한 사회언어학적 분석을 시도한 연구는 많았으나 특히 제주 방언에서 친척 명칭에 관해 국어학적 분석을 시도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물론 친척 중 핵가족 계열이나 인척의 일부를 다룬 연구들은 있었으나 좀 더 넓은 범주에서 친척 명칭을 방언으로 살펴본 연구는 찾기 힘들었다. 그것은 아마도 친척 명칭이 방언이라 할지라도 지역 안에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고, 누구나 그 뜻을 쉽게 알고 쓸 수 있는 기초적인 어휘이기 때문에 방언 연구의 주된 논의 대상

이 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친척 명칭은 그 범주가 넓을수록 다양하고 복잡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으며 주로 구어로 사용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올바른 사용과 그 가치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들을 토대로 제주 방언의 친척 명칭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본래 제주 방언의 의미 해석과 함께 사용 실태를 알아볼 것이다. 또한 분류하는 과정에서 지역적 특수성이 두드러진 개별 어휘들을 분석하여 제주 방언의 어학적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 1.3. 연구 방법과 범위

일반적으로 친척 명칭은 지리적 환경, 사회·문화적 배경, 지역 내 일반적 가족구성 방식, 개인의 문화적 지식 및 명칭 사용방식 등 개별적 차이를 피할 수는 없다. 특히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을 가진 제주는 친척 명칭의 기본적 바탕이 되는 친척 관계에서 간혹 조사대상자나 그 부모가 촌락내혼(村落內婚)이 아니어서 외척(外戚)이나 처족(妻族)과의 호칭 사용이 빈번하지 못할 수도 있다. 또 촌락내혼일 경우라도 배우자 친척들이 소수만 거주함으로써 친척 명칭 사용 경험이 적을 수도 있다. 이런 경우 조사대상자들은 여러 요인으로 친척 명칭에 대해 개인의 방언 사용 경험에 의존하여 진술할 수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 선정에서도 이러한 요소들이 완벽하게 고려할 수는 없지만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 마을의 고령층 집단이 모이는 장소를 찾아 마을 집단 내 대표자들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정보로는 조사 지역 출신이며 오랜 기간 방언을 사용했을 연령층인 60대 이상의 男女를 대상으로 선정하여 조사 어휘의 신뢰를 높이고자 하였다. 조사자의 현황을 보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제보자 정보 및 조사일

번호	이름	나이	성별	조사 지역	조사 일시
1	강봉래	80	남	서귀포시 법환동	2015. 03. 24
2	강상욱	87	여	애월읍 상가리	2015. 03. 28

3	최기중	81	남	표선면 성읍리	2015. 03. 27
4	김창옥	81	여	한림읍 광지2리	2015. 04. 02
5	김매화	95	여	한림읍 광지1리	2015. 04. 02
6	양대선	89	여	한림읍 광지1리	2015. 04. 02
7	김시복	82	남	구좌읍 김녕리	2015. 04. 06
8	김순화	74	여	서귀포시 색달동	2015. 04. 07
9	고계순	89	여	서귀포시 남원읍	2015. 04. 07
10	송월건	63	여	서귀포시 대정읍	2015. 04. 20

조사 지역은 현재 행정체제 기준으로 김순자(2011)<sup>1)</sup>에서 제시한 4개 하위 방언권인 제주도 동북방언(조천·구좌·우도), 서북방언(제주시·애월·한림·한경), 동남방언(서귀·남원·표선·성산), 서남(중문·안덕·대정) 중 각 한 곳씩 선정하여 현지 조사 하였다. 조사 내용은 질문지 작성 및 질의 응답형의 면담조사를 시행하였다. 친척 명칭의 수집과정에서 제주 방언의 호칭어 및 지칭어 모두 조사대상자들의 발음을 그대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친척 명칭의 분류에서 제주 방언의 지역적 특성을 나타내기 위해 수집된 친척 명칭과 표준어를 비교하여 분류하였다. 제시한 표준어는 「표준화법해설」(1992)에서 제시한 친척 관련 명칭들을 제시하였다.

또한 친척의 항렬 구분선은 증조항(曾祖行), 즉 3대 상위 항렬까지로 설정하고, 가족 구성에 따라 크게 ‘直系’, ‘傍系’, ‘姻戚’ 관련 명칭으로 나누어 분류하였다. 여기서 고려해야 할 것은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지만 명칭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다. 이는 구어로 사용하는 특성상 친척 명칭의 간편화와 친척 관계가 가까울수록 친숙한 표현으로 媿家나 妻家, 父系나 母系를 구분하는 혼수 구분을 잘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고려하여 중복된 어휘들은 어학적 관점으로 다룬 논의는 하나로 묶어 다루기로 하겠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그동안 다소 산발적으로 이루어진 친척 명칭들을 수집하여 정리하고, 실제 사용 양상을 알아보기 위해 방언 현장조사를 시행하였다.

1) 김순자(2011)는 방언 문화의 지리적 유형, 방언 분화의 양상 등을 통하여 제주도 방언을 4개의 방언권으로 나누었다. “제주도방언의 언어지리학적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pp.11.

## II. 제주 방언의 친척 명칭 체계와 분류

한국의 친척 용어는 혈연 중심 사회의 구조적 성격이 잘 나타나고 있다. 우선 개념상에 있어 ‘친척’은 ‘친족과 외척’을 아울러 이르는 말인데 여기서 하위 개념인 ‘친족’의 개념을 최규일(1986)은 ‘혈족을 주축으로 하여 인척 중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을 포함한 집단’으로 정의한다.

여기에서 ‘혈족’은 핏줄로서 연결된 집단이며, ‘인척’은 혼인으로 생긴 친족을 말한다. 또한 ‘혈족’은 다시 ‘父系血族’과 ‘母系血族’으로 나눌 수 있다. 따라서 ‘친척’은 친족의 범주에 혈족을 말하는 ‘직계혈족(外戚 포함)’, ‘방계혈족’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는 ‘인척’을 모두 아우르는 상위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개념을 바탕으로 일반적으로 ‘친척’은 혈연이나 혼인으로 자연스럽게 맺어진 사람들을 말한다. 제주 지역뿐 아니라 전 지역에서는 사회 구성원 간의 혈연 관계에 기초한 사회구조를 이루며 살고 있으며, 특히 혈연이나 가문 중심인 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이에 기본적으로 친척 명칭이 특별히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다. 제주에서는 흔히 ‘친척’을 ‘眷黨’(眷黨)이라고 부른다. 특히 전통적 가족생활에서 동일 촌락 내에 혈연 중심으로 모여 사는 형태가 주로 많아 유대강화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었으며, 이에 독특한 친척 명칭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친척의 개념은 여러 연구를 비교해 보아도 큰 차이가 없지만, 친척 자체가 점차 확대되어가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 그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다. 즉 직계혈족 뿐 아니라 혼인을 했을 경우 배우자 혈족까지 더 넓어지는 구조를 이루고 있으므로 친척의 범위에 제한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친척의 범주 구분을 실제 제주 사람들이 사용하는 친척 명칭을 다룰 것이므로 ‘나’와 촌수 관계가 먼 친척까지 고려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또한 광범위한 친척 조직의 범주보다 단순화된 분류가 어휘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데 유용할 것이다.

기존 친척 범위 관련 논의들은 단순화된 명료화를 위해 보통 친척 구성원의 범위를 크게 ‘父系親’과 ‘母系親’, ‘夫系親’, ‘妻系親’의 네 가지 방식으로 나누거나 ‘直系’, ‘傍系’, ‘姻戚’의 계열 방식으로도 나누고 있다.<sup>2)</sup>

2) 최재석(1982:486), 김혜숙(1999) 참고.

여기서는 친척 구성의 범주를 크게 셋으로, 직계(父系血族과 母系血族), 방계(兄弟, 傍系尊屬, 傍系卑屬), 인척(媿家, 妻家)으로 구분하는 방식을 취하고자 한다. 친척 명칭 중 특히 인척에서 시가와 처가로 나누기 때문에 명확하게 구분되는 방식이라 판단되어 이 글에서는 한국 사회의 친척원의 범주를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누기로 한다.

다음으로 고려할 사항은 체계 및 분류에서 친척의 적용 범위에 관한 것이다. 대체로 한국 사회에서 친척 호칭의 사용은 친척 지위 중 상위자에게만 적용되고, 하위자에게는 대신 이름을 부르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인 것으로 생각된다.<sup>3)</sup> 본인도 이를 고려하여 한국 사회에서의 친척 명칭의 적용 범위를 친척 지위상 상위자 및 같은 향렬 내의 대부분의 하위자까지인 것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또한 친척 명칭이 적용되는 친척 지위 중 상위자의 상한선은 대체로 증조항(曾祖行), 즉 3대 상위 향렬까지인 것으로 상정하기로 하기로 한다. 현실적으로 성인인 화자가 직접 대면하여 언어적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상한선이 고조항 이상 즉 4대 이상 상위 향렬의 친척 구성원들을 직접 부르는 독립된 호칭어가 실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증조항(曾祖行)까지로 적용할 것이다.

상한선 외에도 친척 명칭 목록에서 개별 어휘가 적용되는 수평적인 범위는 실제로는 더 확장될 수도 있겠으나, 4촌 내의 범위로만 한정하여 해당 친척형을 표시하도록 할 것이다. 「표준화법해설」(1992)에서도 친척 범위를 4촌 이내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그 이상의 촌수는 4촌 명칭과 크게 다를 바가 없이 촌수만 앞에 덧붙이는 형태로 되어 있기에 제한을 둔 듯하다. 마찬가지로 이 연구에서도 제주 방언의 친척 명칭을 4촌 이내로 제한하여 분류하기로 한다.

마지막으로 제시할 분류에서 「표준화법해설」(1992)에 제시된 표준어와 제주 방언의 친척 명칭들을 호칭과 지칭으로 나누어 나열하였다. 이는 같은 대상일지라도 실제 구어에서 쓰이는 호칭과 청자에게 제3자를 가리키는 지칭에서 쓰이는 용어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친척 명칭은 성별, 연령, 상황, 존대 표현 등의 요인을 고려하여 반드시 구분되어야 한다.

화법에서 ‘호칭어·지칭어’라는 말은 ‘부름말’, ‘가리킴 말’, ‘칭호’, ‘명칭’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아직 분명하게 공통된 용어로 사용되지는 않고 있다. 다음은 호칭과

3) 왕한석(1988), “한국 친족용어의 내적 구조”, 「한국문화인류학」, 20, 한국문화인류학회, pp.145.

지칭의 구분하는 표준어 사용의 예시와 현지조사에서 질의응답 전 자연스러운 발화 상황에서 나온 대화 내용이다.

(1) 표준어 사용을 통해 본 호칭과 지칭

- ㄱ. 아버지, 언제 오셨어요?
- ㄴ. 오늘 여기에서 가친(家親)과 만나기로 했습니다.

(2) 제주 방언의 사용을 통해 본 호칭과 지칭

- ㄱ. 아버님. 천천히 오십서. (아버님, 천천히 오세요.)
- ㄴ. 우리 아방은 이미 돌아가셨주. (우리 아버지(先親)는 이미 돌아가셨다.)

예시 (1ㄱ)을 보면 직접 아버지와 대면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아버지를 직접 부르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으나, 화자가 남에게 자기 아버지를 높여 이르는 말인 ‘가친’(家親)을 아버지 당사자에게는 호칭할 수 없다. 이처럼 같은 대상일지라도 호칭과 지칭이 다른 것은 다음 예시 (2)를 통해 제주 방언도 동일한 것을 알 수 있다. 예시 (2ㄱ)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제주 방언에서 ‘아버지’를 면전(面前)에 모시고 ‘아방’이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아방’은 지칭어이며, 이는 ‘어멍’ 외 대부분의 손위 항렬의 친척원들에 대한 지칭의 활발한 사용도 동일하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호칭어와 지칭어가 언어생활에서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그 어휘가 각각 달리 쓰이므로 제시할 분류에서는 호칭어와 지칭어를 구별하고자 한다.

## 2.1. 直系

### 2.1.1. 부계혈족(父系血族)

직계혈족은 주로 아버지를 통해 맺어진 친척인 부계(父系) 중심으로 나타나는데, 즉 ‘친가’에 해당한다. 또한 국어의 친척 명칭에서 父系血族은 특히 한자로 이루어진 명칭들이 많은데 비해 제주에서는 아래의 분류에서 보듯 한자 사용이 많지 않은 편이다. 直系에서 父系血族과 관련된 명칭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父系血族 관련 친척 명칭

친척의 분류	구분	표준화법	제주방언
증조부모	호칭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	하르바님, 할아버님, 왕할아버지 할마님, 할머니님, 왕할머니
	지칭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 왕하르방, 왕하르뵈, 닛하르방 증조 할머니, 왕할망, 닛할망
조부모	호칭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님, 할아버지, 하르바님 할머니님, 할머니, 할마님
	지칭	할아버지, 할머니	하르방, 성하르방, 성하르바님, 성펜하르방, 성할아버지, 당하르방, 친하르방, 하르뵈, 할망, 성할망, 성펜할망, 성할머니, 당할망, 친할망
부모	호칭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아버님, 아바님 어마님, 어머니님, 어머니
	지칭	아버지, 어머니(아빠, 엄마), 부친, 모친	아방, 아버지, 아버님, 아바님, 당아방, 친아방, 부친 어머니, 어멍, 어머니님, 당어멍, 친어멍, 모친
子	호칭	아들, ○○(이름), ○○ 아비(기혼)	아들(아덜), ○○ 아방(기혼)
	지칭	아들, ○○ 아비(기혼)	나들 놈, 아덜(아덜), 당-아덜, ○○ 아방(기혼)
女	호칭	딸	년, 지집년, ○○ 어멍(기혼)
	지칭	딸	똥, 당-똥, 똥애기(똥아기)
며느리	호칭	아가, 새아가, 아기야, 며늘아, 큰(작은)애야, ○○ 어미야	○○ 어멍
	지칭	며늘아이, 며느리, ○○ 어미, 큰(작은)어미	메누리, 며늘아기
사위	호칭	○서방, 사위, 여보게, 이보게, ○○(이름), ○○ 아범	○○ 아방
	지칭	이 사람, 자네, 사위, ○ 서방, ○○ 아범	사우(사위), ○○(이름)
손주(孫)	호칭	○○(이름)	○○(이름)
	지칭	男- 손자, 女- 손녀	손지, 당-손지, 진손지, 성손지

1) 祖父母

아버지를 통해 맺어진 혈족 즉 父系血族에 대한 명칭들을 살펴보면 우선 ‘祖父’를



위 진술 (3)의 ‘ㄱ, ㄴ’을 통해 평칭 ‘하르방’을 대화에서 자연스럽게 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 (3ㄱ)에서 ‘하르방’을 호칭하는 것은 모든 화자가 가능한 경우는 아니다. 할아버지와 화자가 동일한 항렬일 경우에 자주 쓰이고 보통 진술 ‘ㄴ’처럼 지칭으로 쓰이고 있다. 한편 진술 ‘ㄱ’과 ‘ㄴ’에서 화자가 비슷한 연령임에도 할아버지를 ‘하르방’이라고 부르거나 가리키고 있다. 이는 보통 부부가 다른 사람 앞에서 배우자를 부를 때 ‘OO 아빠’, ‘OO 엄마’라고 부르는 것과 대응된다. 본인의 손자, 손녀의 입장에서 부르고 있는데, 이는 그 사용에서는 표준어와 동일하나 평칭으로 부르는 점에서 그 특이성을 찾을 수 있다. 화자의 연령대가 청자와 비슷한 경우는 상관 없으나 화자가 부르는 대상보다 연령이 낮을 경우 평칭으로 부를 수는 없다.

## 2) 父母

부모(父母) 관련 어휘에서는 제주에서 ‘父’의 어휘는 ‘아방’, ‘母’의 대표 방언은 ‘어멍’이라 할 수 있다. 물론 표준어의 ‘아버지’, ‘어머니’도 사용하나 제주 가족 사회에서 부모 관련 어휘는 ‘아방’, ‘어멍’의 세력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아방’과 ‘어멍’은 호칭보다 지칭으로 쓰이는데 이는 경어법과 관련하여 생각해 보아야 한다. 경어법에서 친척어휘는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한국 사회에서 연령으로 보면 연장자와 연소자의 관계는 수직적 관계로 존재하게 된다. 또한 사람 간에 유대감, 친밀함과 관련한 친소 관계(親疎關係)에 따라 친척명칭의 사용 양상이 달라진다. 그러나 상황적, 사회적 변인에 따라 친밀도가 높더라도 그 사용에 제한이 발생한다. 따라서 제주 방언의 父母 관련 어휘가 표준어와 형태가 다르다고 하여 낮춤 말을 쓴다 할 수 없다.

(4) ㄱ. 조사자: 여기에서는 아버지를 뭐라고 부릅니까?

최○○: 제주에서 아방을 아방이런 하지 뭐랜 하나.

(제주에서는 아버지를 ‘아방’이라고 하지. 뭐라고 부르겠나.)

ㄴ. 조사자: 아버지를 직접 부를 때 아방이라고 합니까?

김○○: 직접 부를 때는 아방이라고 안하지. 아버님이라고 해야지.

옆에 사람한테 누구누구 아방이라고 한다고. 근디 요새 아이들은

그냥 ‘아방! 아방!’이라고 부르긴 하지.

(직접 부를 때는 아방이라고 안한다. 아버님이라고 해야 한다.

옆 사람에게 OO아방이라고 말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요새 아이들은  
그냥 ‘아방! 아방!’ 이라고 부르더라.)

ㄷ. 조사자: 제주도에서는 시아버지를 뭐라고 합니까?

강○○: 시아버지를 씨아방이라고 하주. (시아버지를 ‘씨아방’이라고 하지.)

위 진술을 보아 ‘아방’이 제주 방언에서 ‘父’에 대한 대표성을 지닌 명칭인 것은 사실이나 평칭의 기능을 하고 있어 거의 지칭으로만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제주의 현 젊은 세대에게 ‘아방’과 ‘어멍’은 장소와 청자에 그리 제한을 받지 않는 추세이다. 이는 ‘어멍’뿐 아니라 ‘할망’, ‘하르방’, ‘아방’도 마찬가지이다. 발화 상황에서 웃어른과의 관계에서 격식을 차리는 것보다 가까움과 친밀감의 표현으로 줄임말이나 비칭을 쓰는 것이 현 언어습관의 실상인 것이다.

또한 제주에서 ‘아방’은 단순히 ‘親父’의 의미만 존속되지 않고 여러 친척 어휘를 생성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위의 진술 ‘ㄷ’에서 나온 ‘시(씨)아방’ 외에도 ‘가시아방’, ‘다슴아방’, ‘홀아방’ 등으로 이러한 다양한 친척 어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3) 그 외 혈족

그 외 혈족인 ‘子’, ‘女’, ‘사위’, ‘며느리’에서 드러나는 것은 이들에게 자녀가 있을 경우 ‘OO 아방(어멍)’으로 표준어와 같이 자녀 이름을 붙여 부른다는 점이다. 이는 표준어와 동일한 원리로 화자가 청자, 객체보다 상위자일지라도 청자를 의식하고, 청자를 기준으로 하는 언어습관이 나온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제주 방언에서 표준어와 다르게 두드러지는 점은 비속어의 사용이라 할 수 있는데 이를 통상적인 사용이라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실제 조사현장에서 자녀를 부를 때 비속어 사용이 많았고, ‘지집년’, ‘비발년’, ‘년’ 등과 같이 남성보다 특히 여성을 모욕하는 비속어가 많은 것을 확인하였다. 지금은 흔히 쓰이지 않지만 이런 여성을 차별하는 언어가 많은 것은 과거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미미했던 문화적 배경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시한 친척 분류에서 가장 하위 지위상에 있는 ‘孫子’, ‘孫女’의 제주 방언은 ‘손지’이다. 한자어계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표준어와 달리 제주 방언에서는 마지막 음절의 모음 변화가 보인다. 또한 ‘孫’ 관련 명칭에서 ‘손자’, ‘손녀’로 남녀의 구분이 명확한 표준어와 달리 제주 방언에서는 남녀 동일하게 ‘손지’가 적용된다. 단 성별 구분을 화자가 원하거나 필요한 상황일 때에는 남성 ‘孫’인 경우 그대로 ‘손지’를 사용하지만, 여성 ‘孫’일 경우에 ‘딸손지’, ‘손지년’ 등으로 여성 관련 어휘가 첨가되어 여성임을 강조하여 쓰인다.

또한 화자가 가계 구분을 할 경우에는 ‘성손지’, ‘웨손지’와 같이 ‘성펜(親家)’, ‘웨펜(外家)’의 의미로 ‘성-’, ‘웨-’를 붙이기도 하는데, 특히 친가 관련 접두사 ‘성-’은 사용에서 빼도 충분히 통용되기 때문에 ‘성손지’는 호칭으로는 잘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당손지’, ‘진손지’는 ‘당-’, ‘진-’의 접두사와 결합하여 같은 혈족임을 강조한다.

### 2.1.2. 모계혈족(母系血族)

나를 중심으로 어머니를 통해 맺어진 친척에 대해 표준어에서는 ‘외가(外家)’, 제주 방언은 보통 ‘웨펜켄당’이라 부른다. 母系血族에 관한 친척 명칭은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母系血族 관련 친척 명칭

친척의 분류	구분	표준화법	제주방언
외증조부모	호칭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	하르바님, 할아버님, 할아버지 할마님, 할머님, 할머니
	지칭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	웨증조할아버지, 웨왕하르방, 웨증조부님 웨증조 할머니, 웨왕할망, 웨증조모님
외조부모	호칭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할아버님, 할아버지, 하르바님 할머님, 할머니, 할마님
	지칭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웨하르방, 웨할아버지, 하르방, 웨할망, 웨할머니, 할망
외숙	호칭	외삼촌	삼촌
	지칭	외삼촌	웨삼촌, 웨숙
외숙모	호칭	외숙모	삼촌

	지칭	외숙모	웨삼촌, 여웬웨삼촌, 웨숙모
이모	호칭	이모	삼촌, 이모님, 이모
	지칭	이모	이모님, 이모
이모부	호칭	이모부	삼촌, 이모부님, 이모부
	지칭	이모부	이모부님, 이모부

母系血族과 관련된 친척 명칭은 앞서 본 직계혈족과 큰 차이는 없지만 그 중 나타난 특징은 외가를 뜻하는 접두사 ‘웨-’(外)의 사용이다. 위의 제시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웨할망(외할머니)’, ‘웨하르방(외할아버지)’, ‘웨삼촌’ 등으로 아버지의 家系를 구분할 때 쓰인다.

지칭에서 ‘웨-’(外)를 사용하는 것은 오로지 다른 혈족을 구분하기 위함이다. 이는 ‘성하르방’, ‘성손지’와 같이 친가를 다른 혈족과 구분하여 가리킬 때 ‘성-’(親)을 붙이는 이유와 동일하다. 즉 지칭에서 ‘성-’과 ‘웨-’의 사용은 같은 마을 안에 성가와 외가의 혈족이 함께 거주하는 데서 오는 구분의 필요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호칭은 직접 대면 상황이기 때문에 구별할 필요가 없으나, 지칭어에서는 단순히 ‘할머니’라 하였을 때 어느 할머니인지 모르게 되므로 ‘성-’과 ‘웨-’를 붙여서 구분하는 것일 뿐이며 잘 쓰이지는 않는다. 이러한 접두사 ‘웨-’의 기피 현상은 같은 마을 안 또는 이웃마을에 외가가 위치하므로 일상생활에서 친숙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는 데서 오는 현상으로도 볼 수 있다.

또 이 분류에서 찾은 특성 중 하나는 외가의 친척 중 어머니와 동일 항렬인 ‘외숙’, ‘외숙모’, ‘이모’, ‘이모부’를 모두 ‘삼촌(삼촌)’으로 호칭한다는 점이다. 이후 방계 혈족에서도 ‘삼촌’은 다양하게 사용되는데, 제주방언 ‘삼촌’은 성별에 따른 구별 없이 쓰인다는 점에서 그 특이성이 나타난다 할 수 있다.

## 2.2. 傍系

방계 혈족은 가족 촌수에서 횡(橫)형의 서열로, 여기서 다룰 범위는 화자인 ‘나’를 중심으로 나의 친형제와 4촌 형제까지로 한정한다. 방계혈족에는 ‘형제’ 및 자신보다 항렬이 높은 친척인 ‘방계존속’과 항렬이 낮은 친척인 ‘방계비속’이 있다. 앞서 다룬 直系血族과 겹치는 어휘는 생략하고 나머지 어휘들만 살펴보기로 하겠다. 방계

혈족에 관한 친척 명칭의 분류는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傍系血族 관련 친척 명칭

친척의 분류	구분	표준화법	제주방언		
백부모	호칭	큰아버지, 큰어머니	큰아버님, 큰아버지 큰어머님, 큰어머니		
	지칭	큰아버지, 큰어머니	큰삼촌, 큰아버지, 큰아방, 백부(님) 큰삼촌, 큰어머니, 큰어멍, 백모(님) (셋·말젯·죽은) 아버지, 또는 아방 (셋·말젯·죽은) 어머니, 또는 어멍		
숙부모	호칭	작은아버지, 작은어머니	(셋·말젯·죽은) 아버지, 또는 아방 (셋·말젯·죽은) 어머니, 또는 어멍		
	지칭	작은아버지, 작은어머니	(셋·말젯·죽은) 삼촌 또는 아버지(아방), 숙부 (셋·말젯·죽은) 삼촌 또는 어머니 (어멍), 숙모		
고모	호칭	고모	삼촌, 고모(님)		
	지칭	고모	○○(이름, 지명) 삼촌, 고모(님)		
고모부	호칭	고모부	삼촌, 고모부(님)		
	지칭	고모부	○○(이름, 지명) 삼촌, 고모부(님)		
형	호칭	화 자 (남)	형(님)	화자(남)	성(님), 형(님)
		화 자 (여)	오빠, 오라버니 (님)	화자(여)	오라바님, 오라버니
	지칭	화 자 (남)	형(님)	화자(남)	성(님), 형(님)
		화 자 (여)	오빠, 오라버니 (님)	화자(여)	오라바님, 오라방
형의 아내	호칭	화 자 (남)	아주머니(님), 형수(님)	화자(남)	아주마님(아지마님), 형수님
		화 자 (여)	언니, 새언니	화자(여)	언니, 새언니
	지칭	화 자 (남)	아주머니(님), 형수(님)	화자(남)	형수(님), 아주망(아지망)
		화 자 (여)	언니, 새언니	화자(여)	언니, 새언니
남동생	호칭	○○(이름), 아우, 동생		화자(남)	아시, ○○(이름), ○○ 아방
				화자(여)	○○(이름)

	지칭	○○(이름), 아우, 동생		화자(남)	아시, 동생
				화자(여)	남동생, 오래비
남동생 의 아 내	호칭	화 자 (남)	제수씨, 계수씨	화자(남)	아주망(아지망), ○○ 어멍
		화 자 (여)	올케	화자(여)	○○ 어멍
	지칭	화 자 (남)	제수(씨), 계수 (씨)	화자(남)	아주망(아지망), 아시각시, 제수
		화 자 (여)	올케	화자(여)	오라방 각시, 오래비각시, 올케
손 위 누 이(姉)	호칭	화자(남)	누나, 누님	화자(남)	누님, 누나
		화자(여)	언니	화자(여)	성님, 언니
	지칭	화자(남)	누나, 누님	화자(남)	누님, 누이, 누나
		화자(여)	언니	화자(여)	성님, 언니
손 위 누이의 남편	호칭	화 자 (남)	매부, 매형, 자 형,	화자(남)	성님, 형님, 매형
		화 자 (여)	형부	화자(여)	아주바님(아지바님)
	지칭	화 자 (남)	매부, 매형, 자 형,	화자(남)	매형, 매부
		화 자 (여)	형부	화자(여)	아주방(아지방), 아주바님(아지바 님), 형부
손 아 래 누이 (妹)	호칭	○○(이름), 동생		화자(남)	○○(이름), ○○ 어멍
				화자(여)	아시, ○○(이름)
	지칭	○○(이름), 동생, 누이 동생		화자(남)	누이, 누이동생
손 아 래 누이 의 남편	호칭	매부, ○서방		화자(남)	아시, 동생, ○○ 아방
				화자(여)	아주방(아지방)
	지칭	매부, ○서방		화자(남)	매제, 매부
				화자(여)	아주방(아지방), 아시서방
손 위 사촌 (從兄)	호칭	화 자 (남)	형(님),	화자(남)	성님, 형님
		화 자 (여)	오빠, 오라버 니	화자(여)	오라바님, 오라버니
	지칭	화 자 (남)	사촌형(님)	화자(남)	사촌성님, 종형
		화 자 (여)	사촌오빠, 사 촌오라버니	화자(여)	사촌오라바님
손 위 사촌의	호칭	화 자 (남)	형수(님)	화자(남)	아주마님(아지마님), 형수님

아내		화 자 (여)	언니, 형님	화자(여)	성님
	지칭	화 자 (남)	형수, 종형수, 사촌형수	화자(남)	4촌형수, 종형수
		화 자 (여)	사촌오빠아내, (지명) 언니, (지명) 형님	화자(여)	4촌오라바님각시, (지명)성님
손아래 사촌 (從弟)	호칭	명호칭		화자(남)	아시, 동생, ○○(이름), ○○ 아방
				화자(여)	오라방, ○○(이름)
	지칭	사촌동생, 종제		화자(남)	4촌아시, 4촌동생, 종제
				화자(여)	4촌오라방, 4촌오래비
손아래 사촌의 아내	호칭	화 자 (남)	제수(씨)	화자(남)	아주망(아지망), ○○ 어명
		화 자 (여)	올케	화자(여)	아시
	지칭	화 자 (남)	사촌제수	화자(남)	4촌제수
		화 자 (여)	사촌올케	화자(여)	4촌아지망, (지명) 아시, 4촌 올케
종자 (從姉)	호칭	화 자 (남)	누나	화자(남)	누님
		화 자 (여)	언니	화자(여)	성님
	지칭	화 자 (남)	사촌누나	화자(남)	4촌누님
		화 자 (여)	사촌언니	화자(여)	4촌성님
종자 (從姉) 의 남 편	호칭	화 자 (남)	자형, 매형	화자(남)	성님
		화 자 (여)	형부	화자(여)	아주바님(아지바님)
	지칭	화 자 (남)	4촌 자형, 4촌 매형	화자(남)	4촌매형, 종매형
		화 자 (여)	4촌 형부	화자(여)	4촌 아주바님(아지바님), 4촌형부, (지명)아주바님(아지바님)
종매 (從妹)	호칭	○○(이름)		화자(남)	○○(이름), ○○ 어명
				화자(여)	아시, ○○(이름)
	지칭	사촌동생, 사촌여동생		화자(남)	4촌누이, 종매



기서는 형을 성님, 성님 한다. 다른 말은 없다.)라고 진술했다. 이렇게 제주 방언 ‘성’(兄)은 표준어 ‘형’의 사용 대체 어휘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요즘 제주에서는 세대가 낮을수록 표준어 ‘형’과 ‘언니’로 더 많이 쓰고 있는 모습을 보여 ‘성님’의 사용 세력은 약해져 가고 있다.

제주 방언 ‘성님’이 여자 동성 간에서만 사용이 가능하였다면 여성이 손윗 남자 형제에게 쓰이는 어휘로는 제주 방언 ‘오라방’이 있다. 즉 ‘오라방’은 여성화자만 쓸 수 있는 여성 전용 어휘이다. ‘오라방’은 과거 연령과 상관없이 남자 형제에게 다 적용되었으나 현재는 ‘오라버니’의 낮춤말로 손윗 사람에게 적절하지 못한 환경의 제약이 많아져 주로 지칭으로 사용되고 있다. 다음은 ‘오라방’ 관련 진술 내용이다.

(6) ㄱ. 조사자 : 할머니! 제주도 말로 오빠를 뭐라고 부릅니까?

김○○ : 오빠는 오라방이주게. 오라방 아님 뭐랜 해?  
높영 부를 때는 오라바님이랜도 해나신디 그냥 오라방이랜 고른다게.  
(오빠는 ‘오라방’이라고 부른다. ‘오라방’ 아니면 뭐라고 부르겠나.  
높여서 부를 때는 ‘오라바님’이라고도 불렀었는데, 주로 ‘오라방’이라 한다.)

ㄴ. 조사자 : 그럼 남동생은 뭐라고 부릅니까?

김○○ : 남동생은 오래비라 하주. 우리 오래비 저기 왔져, 니네 오래비 어디 가시냐? 영 고라 주게.  
(남동생은 ‘오래비’라고 부른다. ‘우리 오래비 저기 왔다. 너네 오래비 어디 갔니?’ 이렇게 부른다.)

위의 내용과 같이 ‘오라방’은 여성화자가 손윗 남자 형제를 편하게 부르려고 평칭으로 쓰인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호칭으로 부를 경우는 일부 지역만 해당될 뿐 대부분은 존칭 ‘오라바님’, ‘오라버님’을 쓰는 것으로 파악된다. 제주 방언 ‘오라방’은 의미면에서 ‘男兄’뿐 아니라 사촌, 외사촌 등 자신과 가깝게 지내는 손윗 남자 친척의 경우와 가까운 이웃의 남자 형제까지 범위가 고루 분포되어 쓰임을 알 수 있다. 비친척일 경우 단순히 ‘오라방’이라 부르지 않고 ‘외도 오라방’, ‘세화 오라방’과 같

이 ‘택호명’을 앞에 붙여서 대상을 구분할 때 사용한다.

마지막으로 제주방언 ‘아시’는 ‘男弟’의 의미로, 표준어 ‘아우’, ‘동생’과 대응되며, 성별이나 촌수와 상관없이 자신보다 손아랫 사람이라면 사용이 다 가능하다. 단, ‘아시’는 동성 간에서만 적용되는 제약이 있다.

구좌읍 김녕리의 김OO(82세)는 “여기서는 여동생을 뭐라고 부릅니까?”라는 질문에, “아시, 아시라고 부르지. 오라방 같은 경우는 누의야 누의야 해주.”(아시, 아시라고 부른다. 오라방 같은 경우는 누이야! 누이야! 한다.), 또 “아시는 남자만 사용할 수 있는 말인가요?”라고 물으니 “아니, 상관어서게. 여자가 써두 되고. 남자가 써두 되메.” (아니다. 상관 없다. 여자가 사용해도 되고, 남자가 해도 된다.) 라고 답했다.

이렇게 ‘아시’는 제주에서 남녀 모두 두루 쓰이지만, 대표적으로 여성 간의 사용이 더 활발하게 쓰여 관련 방언 자료에서는 여성 대표 어휘라 칭하기도 한다. 제주 사람들에게 ‘아시’는 친동생에게만 쓰이는 어휘는 아니다. 분류에서도 알 수 있지만, 시동생, 촌수 관계없이 자신보다 아랫사람인 경우 모두 ‘아시’로 통한다. 이는 촌수와 혈족의 구분 없이 친동생처럼 여긴다는 의미에서 ‘아시’를 사용하기에 어색함이 없는 것이다. ‘아시’의 확대 사용은 표준어에서 발견할 수 없는 언어현상이며 독특한 제주만의 가족 사회 구조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제주에서는 ‘아시’조차 고령층 사이에서 거의 사용하고 있으며, 표준어에 익숙한 젊은 세대들은 ‘男弟’의 대표적인 지칭어인 ‘동생’을 사용하고 있어 ‘아우’조차도 잘 쓰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2.2.2. 방계존속

제주 방언에서는 ‘伯父母’를 ‘큰아방’, ‘큰어멍’, 혹은 ‘삼춘’을 쓰고 있다. 물론 표준어의 ‘큰아버지’, ‘작은아버지’도 사용하나 방언 조사에서 지칭으로 ‘큰아방’, ‘큰어멍’의 사용이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렇게 ‘큰아방’과 ‘큰어멍’의 사용빈도가 높은 것은 가족 간의 심리적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격식을 차리지 않고 편하게 부르는 언어 습관의 요인이라 생각된다. 간혹 존대 표현으로 존칭 접미사 ‘-님’을 붙여 ‘큰아바님’, ‘큰어마님’이라고 하기도 하나 제주 지역에서 방언 조사 결과, 고령층 세대라 할지라도 ‘伯父母’의 존대표현은 거의 찾기 힘든 것으로 파악 되었다.

또한 방언 조사를 통해 ‘큰아방’, ‘큰어멍’ 외에 ‘삼춘’도 쓰이는데, ‘삼춘(삼춘)’은

‘伯父’뿐 아니라 게다가 여성인 ‘伯母’, ‘叔母’에게도 적용된다는 점이 특이하다. 여성이라도 아버지 항렬의 사람이라면 ‘삼촌’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렇게 ‘삼촌’의 경우 여성에게도 쓰인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즉 다른 지역 방언에서 ‘삼촌’은 남성에게만 쓸 수 있는데 이와 대조적으로 제주 방언의 ‘삼촌’은 성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부계혈족 분류를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 형제들의 서열에 대한 어휘들이다. 제주 방언도 표준어와 마찬가지로 서열에 따라 형제를 구분하여 호칭하고 지칭한다. 伯父母의 손아래인 叔父母를 ‘죽은 아방’, ‘죽은 어멍’이라 한다. 이는 표준어 ‘작은아버지’, ‘작은어머니’와 대응된다. 형제가 여럿일 경우 ‘큰-, 셋-, 말젓- 죽은’ 등의 순서로 부르게 된다. 만약 형제가 셋이면 ‘큰· 셋· 죽은’, 넷이면 그 사이에 ‘말젓’이 붙는다. 그러나 다섯 이상일 때는 ‘말젓’을 다시 여럿으로 나눈다. 즉 ‘큰· 말젓· 셋말젓· 죽은말젓’으로의 방식으로 구분한다. 이것은 ‘어멍’, ‘오라방’, ‘아지방’, ‘아지방’, ‘삼촌’ 등과 같은 다른 친척 가족원 앞에서도 이러한 서열 관련 어휘는 동일하게 적용된다.

### 2.2.3. 방계비속

방계혈족 관련 명칭 중 대표적인 것은 ‘아주방(아지방)’과 ‘아주망(아지방)’을 들 수 있다. 먼저 아주방(아지방)은 주로 여자가 친척 중 손아래 남자를 가리켜 부르는 말이다. 현대국어로는 ‘아주버니’라 할 수 있으며, 주로 여성 화자가 남편의 동생(시동생)을 이르거나 자신의 여동생의 남편을 부를 때 ‘아주방’을 사용한다. 아주방은 촌수의 거리와 상관없이 손아래 방계혈족에게 흔히 쓰이고 있다. 존칭으로는 ‘아주바님’(아지방님)으로 쓰이는데 이는 삼촌과 같은 항렬의 친척원 뿐 아니라 삼촌 항렬의 남성이라면 비친척원도 모두 적용된다. ‘아주방’은 과거 ‘伯父’, ‘叔父’를 포함하는 명칭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지금은 ‘伯父’와 ‘叔父’가 ‘큰아방’, ‘죽은아방’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아 ‘아주방’은 남성의 삼촌 항렬과 같은 친척어휘로 쓰이고 있다. 또한 ‘아주방’은 현재 친척 범위에서 일반어휘로 그 역할이 확장되어 이웃 동기 이외의 아래의 남자나 남자 어른을 지칭할 때도 쓰이고 있다.

또 하나 ‘아주망’은 본래 남자가 제수를 부르거나 남자가 동기(同氣) 이외의 아랫여자를 부르는 말이다. ‘아주망’은 앞서 본 ‘아주방’과 대응 되어 여성에게 해당하는

어휘이며 현대국어에는 ‘아주머니’가 있다. 존칭으로 ‘아주마님(아지마님)’이라 부르는데 이는 남성 화자가 대상을 자신보다 손위 여성을 높이어 부르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조사 결과 일부 지역에서 표준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여성 호칭으로 ‘兄嫂’, ‘妻兄’, ‘妻弟’를 제주 방언에서는 ‘아주망(아지망)’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아주망’은 그 의미를 친척원에만 사용 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비친척일 경우라도 가까운 관계의 결혼한 여성의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다.

그 외 방계혈족과 관련된 친척 명칭에는 이제까지 방계혈족에서 다른 어휘 앞에 ‘4촌’과 같이 촌수를 앞에 붙이거나 한자 친척 어휘로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렇게 친척 명칭에서 제주 방언의 개별 어휘가 사용되는 범위는 최대 범위로 4촌의 범위까지로 볼 수 있다. 이는 제주 사람들의 언어 생활에서 명칭의 사용에 혼란을 주지 않는 선에서 간소화시키는 형태를 보이는 것이다. 또한 친척이라는 조직에서 서열이나 촌수를 특별히 따지지 않고 연령을 중심으로 사용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父’와 동일한 항렬의 친척원에게 모두 ‘아주마님(아지마님)’ 혹은 ‘삼촌’으로 통상 사용한 것이나 손윗 동기에서는 남녀 상관없이 동성 간에 ‘성님’으로 보통 통하는 것이 한 예가 될 것이다.

방계혈족과 관련한 명칭 사용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부모의 형제에게는 ‘큰-’, ‘죽은-’ 등과 같은 서열 관련 접두사를 붙여 ‘아방’, ‘어멍’을 사용하거나 남녀 구분 없이 ‘삼촌’이라 하기도 한다. 남성은 결혼한 친척 여성에 대해 그 관계에 따라 ‘아주마님(아지마님)’, ‘아주망(아지망)’, ‘형수’, ‘제수’ 등이라 하고, 여성은 결혼한 친척 여성에게 ‘성님’, ‘오라방 각시’, ‘아지망’이라 한다. 또한 여성이 결혼한 친척 남성에게 대해서는 ‘아주마님(아지마님)’, ‘아주망(아지망)’, ‘아시서방’, ‘형부’ 등으로 사용한다.

또한 형제 사이에서는 손윗 동성(同姓)끼리는 ‘성님’, ‘성’ 등이고, 남성이 손윗 여성을 부를 때는 주로 ‘누이’, ‘누나’라 칭하고, 여성이 손윗 남성을 부를 때는 ‘오라바님’, ‘오라버니’, ‘오라방’ 등으로 불린다. 손아래 동성(同姓) 간에는 남녀 구분 없이 ‘아시’, ‘동생’, ‘아우’ 등으로 부른다.

## 2.3. 姻戚

### 2.3.1. 媿家

혼인하여 시가에 들어온 여성의 입장에서든 친척 명칭은 부계혈족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남편을 통해서 맺어진 친척원에 대한 친척 어휘는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媿家 관련 친척 명칭

친척의 분류		표준화법	제주방언
남편의 祖父母	호칭	할아버님, 할아버지 할머님, 할머니	하르바님, 할아버님, 할아버지 할마님, 할머님, 할머니
	지칭	시할아버지(님), 시할머니(님), 시조부모 님	시하르바님, 시하르방, 시하르뻘 시할마님, 시할망
남편의 父母	호칭	아버님 어머님, 어머니	아바님, 아버님, 아버지 어마님, 어머님, 어머니
	지칭	아버님, 시아버지, 시아 버님 어머님, 시어머니, 시어 머님	시아버지, 시아방(씨아방) 시어머니, 시어명(씨어명)
남편의 伯父母	호칭	큰아버님 큰어머님	큰아버지, 큰아버님 큰어머니, 큰어머님
	지칭	큰시아버지, 시댁 큰아 버지, 큰시어머니, 시댁 큰어 머니	시(큰)삼촌, 큰시아버지, 큰시아방 시(큰)삼촌, 큰어머니, 큰시어명
남편의 叔父	호칭	작은아버님	(셋·말젯·죽은) 아버지 또는 아버님
	지칭	숙부, 작은시아버지 (님), 시댁 작은아버지 (님)	(셋·말젯·죽은) 시아버지(아방) 또는 시삼촌
남편의 叔母	호칭	작은어머님	(셋·말젯·죽은) 어머니 또는 어머님
	지칭	숙모, 작은 시어머니 (님), 시댁 작은 어머니	(셋·말젯·죽은) 시어머니(어명) 또는 시삼촌

		(님)	
남편	호칭	고모님	고모님
의 姑 母	지칭	시고모(님)	시고모(님), 시삼촌
남편의 姑母夫	호칭	고모부님	고모부님
	지칭	시고모부(님)	시고모부(님), 시삼촌
남편의 兄	호칭	아주버님	아주바님(아지바님)
	지칭	시아주버니(님), ○○ 큰아버지, 시숙	시아주방(시아지방)
남편 兄 의 아내	호칭	형님	성님
	지칭	형님, 큰동서(맏동서), ○○ 큰어머니(님)	큰동세, 큰성님
남편의 아우	호칭	도련님(미혼) 서방님(기혼)	아주방(아지방), ○○ 아방(기혼)
	지칭	도련님(미혼) 서방님(기혼) 시동생, ○○ 작은아버 지, ○○ 삼촌	시동생, 시아주방(시아지방), ○○ 아방(기혼)
남편 아우의 아내	호칭	동서	아시
	지칭	동서, ○○ 작은어머니 (님)	동세
남편의 누 이 (姊)	호칭	형님	성님
	지칭	형님, 시누이, ○○ 고 모(님)	큰시누이
남편 누이의 남편	호칭	아주버니(님), 서방님	아주바님(아지바님)
	지칭	아주버니	큰시누이서방, ○○ 아방, 아주바님(아지바 님), (지명)아주방(아지방)
남편의 누이동 생(妹)	호칭	아가씨, 아기씨	○○(이름), ○○ 어명
	지칭	아가씨, 아기씨, 시누이, ○○ 고모	작은시누이
남편의 누이동 생(妹) 의	호칭	서방님	아주방(아지방)
	지칭	고모부(님), (지명, 성) 서방님, ○○ 고모부 (님)	작은시누이서방

남편			
남편 (男便) 의 4촌	호칭	조카, ○○(이름)	조케, ○○(이름)
	지칭	시조카	시조케

혼인한 여성이 접촉하게 되는 시가의 친척 범위로 위 <표 5>에 제시된 것이 전부  
는 아니지만, 범위를 더 살펴봐도 친척 명칭 사용에 있어 시가와 처가의 명칭에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위의 분류를 통해 알 수 있는 처가 관련 명칭의 특징은 먼저 시가 혈족에  
대해 존칭의 사용이 적다는 점이다. 직계혈족과 표준어의 경우 왕한석(1992:165)은  
父系親 및 母系親의 호칭어들은 일반적으로 평칭의 용어들로 구성되는 반면 夫系親  
의 호칭어들은 일반적으로 존칭의 용어들로 구성<sup>5)</sup>된다고 하였으나 제주에서는 오히  
려 남편과 같은 항렬일 경우 평칭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개인 차를 배제할 수 없  
지만, 흔히 제주 가족사회에서 혼인한 여성이 자신의 시가의 구성원들을 평칭의 기  
능을 가진 방언으로 구사하는 것은 그들에게 친근하게 표현하려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방계혈족에서 여자 손아래 친척원에게 주로 사용하는 명칭인 ‘아시’를 소개하  
였다. 이것은 시가에서도 마찬가지로 남편의 ‘兄’과 ‘姉’ 및 그 배우자에게는 ‘-님’이  
붙여 사용하나 시동생과 손아래 시누이에 대하여는 명호칭 외에 ‘아지방’, ‘아시’를  
사용하기도 한다. 이는 여성이 손아래 시누이나 시동생에 대해 ‘도련님’, ‘아가씨’ 등  
높임말로 호칭하는 육지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또 시가의 혈족 구분을 나타내는 ‘시(씨)-’ 접두사가 호칭에는 잘 쓰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렇게 제주 방언 친척 명칭에서 男系와 女系를 구별하는 의식이  
약함을 볼 수 있다. 호칭 상에 차별은 없고 다만 지칭으로 시가 친척일 경우 ‘시  
(씨)-’를 붙여 가계(家系)를 구분할 뿐이다. 그리 멀지 않은 지역권에 성가나 외가,  
시가와 처가의 같은 지역 내 거주가 큰 요인으로 볼 수 있으며 이것이 친척용어에  
반영된 것으로 파악된다. 다음 진술 내용을 통해 家系 구분이 크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5) 왕한석(1992), "한국 친척호칭체계의 의미기술", 「한국문화인류학」, 24-1, 한국문화인류학회, pp.165.

(7) ㄱ. 조사자: 할머니!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제주에서 뭐라고 부르니까?

양○○: 보통 아버님, 어머님님 해주. 근디 다른 사람한테 고를 때는 시아방,  
시어명허여.

(보통 ‘아버님’, ‘어머님’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시부모님  
을 가리킬 때는 ‘시아방’, ‘시어명’이라고 한다.)

마지막으로 다른 혈족도 동일하지만 ‘동세’나 ‘조케’는 성별 구분이 없는 구조를 나타낸다. 이는 호칭이나 지칭 모두에서 성별 또는 향렬이 크게 우선되지 않는 제주 켤당 문화로 나타난 제주 방언의 특성이라 할 수 있다. 실제 발화에서 ‘동세’와 ‘조케’는 호칭과 지칭 둘 다 쓰이는데, 주로 ‘범환 동세’, ‘하귀 조케’ 등과 같이 ‘택호명’을 붙여 사용한다.

### 2.3.2. 妻家

‘나’를 중심으로 나의 아내를 통해 맺어진 친척원들에게 사용하는 친척용어는 <표 6>과 같다.

<표 6> 妻家 관련 친척 명칭

친척의 분류		표준화법	제주방언
처 의 조부모	호칭	할아버지(님) 할머니(님)	하르바님, 할아버님, 할아버지 할마님, 할머님, 할머니
	지칭	처할아버지(님), 처조부님 처할머니(님), 처조모님	처할아버지, 처하르방, 처조부님 처할머니, 처할망, 처조모님
처 의 부모	호칭	장인어른, 아버님 장모님, 어머님	아바님, 아버님, 아버지, 장인어른 어마님, 어머님, 어머니, 장모님
	지칭	장인어른, 아버님, ○○ 외할아버지 장모님, 어머님, ○○ 외 할머니	가시아방, 장인어른 가시어명, 장모(님)

처 의 백부모	호칭	삼촌, 큰아버님	삼촌, 큰아버지 삼촌, 큰어머니
	지칭	처삼촌(님), 처백부(님)	큰가시아방, 큰장인, 처백부 큰가시어명, 큰장모, 처백모
처 의 숙부	호칭	작은아버님, 숙부님	(셋·말쑈·죽은) 아버지 또는 삼촌
	지칭	처숙부(님)	(셋·말쑈·죽은) 가시아방, 처숙부
처 의 숙모	호칭	작은어머님, 숙모님	(셋·말쑈·죽은) 어머니 또는 삼촌
	지칭	처숙모(님)	(셋·말쑈·죽은) 가시어명, 처숙모
처 의 고모	호칭	고모님	삼촌, 고모님, 고모
	지칭	처고모(님)	처고모님
처 의 고모부	호칭	고모부님	삼촌, 고모부님
	지칭	처고모부	처고모부
처 의 오빠	호칭	형님, 처남(연하)	성님
	지칭	형님, 처남(연하), ○○ 외삼촌	처남
처 의 오빠의 아내	호칭	아주머니	아주마님(아지마님)
	지칭	처남의 댁, 처남댁	처남각시
처 의 남동생	호칭	처남, ○○(이름)	아시, ○○(이름)
	지칭	처남, ○○(이름), ○○ 외삼촌	(죽은) 처남
처 의 남동생 의 아 내	호칭	처남댁, 처남의 댁	아주망(아지망)
	지칭	처남의 댁, 처남댁	(죽은) 처남각시
처 의 언니 (姊)	호칭	처형	아주마님(아지마님)
	지칭	처형	처형, 처아주망(처아지망)
처 의 언니의 남편	호칭	형님, 동서(연하)	성님
	지칭	형님, 동서(연하)	동세
처 의 여 동생 (妹)	호칭	처제	아주망(아지망), 처제
	지칭	처제	처제
처 의 여동생	호칭	동서, ○서방	아시, ○○(이름)
	지칭	동서, ○서방	(죽은) 동세

(妹)의 남편			
처의 4촌	호칭	명호칭	○○(이름), ○○ 아방
	지칭	처조카	처조케

위의 표를 보듯, 처가 관련 명칭 중 호칭에서는 ‘처-’의 사용조차 그리 많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국어의 처계 친척 관련 호칭어는 이 범주의 친척원만 쓰이는 독특한 용어 형태들로 구성될 뿐 아니라 거의 한자어로 구성됨으로써 다른 친척범주의 호칭어들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친척 호칭의 독립적인 하위 범주를 구성한다.<sup>6)</sup>

그러나 제주 방언 중 처가 호칭에서는 처가(妻家)를 잘 구분해서 쓰지 않는 편이다. 이는 제주 전통 문화적 배경을 고려하면 남성 화자가 어려서부터 함께 자라온 동네 집안이 처가가 된다면 그 친소관계에서 서로 가깝고 편해서 호칭에서 크게 가계(家系) 구분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대화에서 지칭으로 ‘처남’이나 ‘처제’와 같이 기본 친척 명칭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직접 호칭할 때는 남성 화자의 입장에서 ‘아시’와 ‘아주망’, ‘아지망’과 같이 친가 친척원을 부르는 명칭과 겹치는 경우가 많다. 다른 지역 사람의 시각에서는 마치 사위도 그 집안의 혈족처럼 행동하는 것으로 보일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처가와 같은 지역 내에 거주하여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회적 요인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처가의 친척을 굳이 구별할 상황이 흔치 않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처가 관련 명칭 중 제주 방언의 특수성을 잘 나타내는 것은 ‘丈人’, ‘丈母’를 뜻하는 ‘가시아방’, ‘가시어멍’이 있다. 표준어에는 ‘가시아비(어미)’, ‘가시아버지(어머니)’가 사전에는 등재 되어 있으나 현재 실생활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고 있다. 제주 방언의 경우 현 고령층 세대에서는 지칭으로 활발히 쓰이나 세대가 어릴수록 ‘장인’, ‘장모’ 사용 대체로 제주에서조차 구어(口語)로의 쓰임을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8) ㄱ. 조사자: 할아버지, 제주도에서는 장모를 뭐라고 부르니까?  
 장○○: 가시어멍이라 하주. 각시 어멍행이냉 그걸 가시어멍이랜 하는거라.

6) 왕한석(1992), 위의 논문, pp.169.

(‘가시어멍’이라 한다. ‘각시의 어머니’라 하여 그것을 ‘가시어멍’이라고 하는 것이다.)

위의 진술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지만 ‘가시어멍’은 현재 제주 사회에서 희귀한 제주 방언으로 잘 알려져 있으나, 그 쓰임은 줄어든 상황이다. 이는 젊은 층 사이에서 ‘가시어멍’보다는 ‘장모님’의 사용 대체가 편리하고 익숙하여 표준어 사용이 확대된 요인이 가장 큰 것으로 파악된다.

### Ⅲ. 분류에 따른 국어학적 고찰

제주 친척 명칭의 분류를 통해 어휘들을 살펴본 결과 표준어와 비교하여 그 의미와 어형에서 독특한 면들을 찾을 수 있었다. 분류한 어휘를 개별적으로 자세히 살펴보면 형태론적 측면에서는 고어의 모습이 남아 있을 뿐 아니라 의미론적 측면에서도 본래 의미를 유지하거나 의미 기능이 확대되어 쓰이는 어휘들이 많이 있었다. 이는 친척 명칭 중 고어의 형태를 소실한 경우가 많은 표준어와 달리 제주 방언은 여러 사회언어학적 요인에 의해 친척 관련 어휘의 형태와 의미에 큰 변화를 겪지 않고 아직 세력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장에서는 앞서 살펴본 것을 토대로 고어의 형태가 남아 있는 개별 어휘들을 찾아 통시적 관점에서 그 특성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 3.1. 直系 관련 어휘

##### 3.1.1. 아방(父)

제주방언에서 ‘父’에 관한 친척 어휘로는 ‘아버지’, ‘아방’, ‘아빠’, ‘아버님’ 등이 있는데 古語로는 ‘아비’, ‘아바’, ‘아바님’, ‘아범’ 등이 있다. 이 중 父의 평칭으로 가장 대표적인 古語인 ‘아비’는 중세국어의 용례를 몇 가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9) 父는 아비오 <月釋 14>

그 아비 스랑호야 상네 불부들 즈비를 시기스뻐터니 <釋譜 11:26>

아드리 아비 천량 물러가주미 <釋譜 13:18>

諸子 | 지비 나 아빅게 나사가 <法華 2:70>

아비웃 이시면 우리를 어엿비 너겨 <月釋 17:21>

아바 어마 昭昭호고 <普勸附篇 19>

위의 (9)에서 나온 용례를 보듯 ‘아비’는 父의 명사로서 독자적 기능을 수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아비’는 쉽게 문헌에서 발견할 수 있을 만큼 활발히 사용되었으며,

父의 의미 외에도 성인 남자의 의미로도 사용되었다.<sup>7)</sup>

한편 ‘아비’는 ‘한아비, 오라비’ 등으로 파생의 기능도 수행한다. 후에 살펴보겠지만 ‘한아비’는 ‘한-+아비’의 구조로 아버지와 관계에서 바로 위의 항렬이고 권위 있는 남자로 ‘오라비’는 ‘올-+아비’로 아버지보다 미숙하고 어린 남자 정도로 해석될 수 있다.

(10) 어려 아비 죽고 어미를 섬기되 <五倫 1:62>

위 (10)의 용례와 같이 근대국어에서 ‘아비’는 평칭형 형태 외에는 이전 나타난 친척 어휘의 형태와 의미를 그대로 유지하여 ‘아비’를 이용한 새로운 단어 파생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근대와 동일하게 현대국어에서 ‘아비’는 비칭의 개념으로 나타난다.<sup>8)</sup> ‘아비 없는 후례자식’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의미 가치의 하락을 보인다. 현대국어 ‘아비’는 ‘父’에 대해 언어 예절로 평칭으로 사용할 경우가 거의 없는 이유와 父의 일반적 어휘인 ‘아버지’, ‘아빠’, ‘아빤’ 등의 사용으로 인해 지칭으로도 잘 쓰이지 않고 있다.

여기서는 표준어 ‘아빠’와 관련하여 ‘아비’ 외에 父의 평칭인 ‘아바’를 더 살펴보고자 한다. 같은 의미와 평칭일 지라도 ‘아비’가 지칭이라 한다면 ‘아바’는 호칭이라 할 수 있다. ‘아바’가 문헌에 찾기 어렵지만 ‘아바’의 존칭형 ‘아바님’을 통해 그 흔적을 살펴볼 수 있다.

(11) 아바님 지흐신 일흠:考取名 <龍歌 90章>

아바님 일크르시니 <龍歌 91章>

아바님기와 아즈마님기와 <釋譜 6:1>

‘아바’는 이후에 살펴볼 母의 대응어 ‘어마’와 비슷한 시기에 등장했으며, 현대국어 ‘아빠’와 그 관련성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 ‘아바’가 평칭의 호칭어로 이어져왔다고 볼 수 있다.

7) 김태곤(1984), “朝鮮時代 親戚名稱攷”, 『중앙대어문논집』, 17, 중앙대학교 국어국문학과, pp.68.

8) 『새우리말큰사전』(1985)에는 아비를 ‘아버지를 낮추어 이르는 말’로 정의 하고 있다.

‘아바’는 근대국어에도 변함없이 쓰이다 20세기에 이르러 ‘압바’ 또는 ‘아빠’로 그 형태가 변하게 된다. ‘아바’에서 ‘압바’는 ‘아바’의 선행음절의 말음에 ‘ㅂ’이 갑자기 덧붙게 된 것이다. 이는 후에 살펴볼 母의 핵어인 ‘어마’가 후행음 ‘ㅁ’이 첨가된 ‘엄마’처럼 父의 ‘아바’도 후행음 ‘ㅂ’이 첨가된 ‘압바’로 나타난 것이다. 이는 동음 첨가에 의한 형태 변화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대국어에서는 ‘압바’보다는 ‘아빠’가 그 세력이 강해지면서 ‘압바’는 소실된다.

### (12) ‘아빠’의 사전적 정의

가. 아빠: 젓먹이가 자기의 아버지를 부르는 말. <朝鮮語辭典>

나. 아빠: ‘아버지’의 어린이말. (아바) <우리말큰사전>

다. 아방: ‘아버지’의 방언. (제주) <표준국어대사전>

아빠: 격식을 갖추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아버지’를 이르거나 부르는 말. <표준국어대사전>

위에 제시한 (12)의 정의와 같이 ‘아빠’는 명칭 사용 초기에 유아어로서의 사용이 강했으나 현재 고령층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령의 연령 제한 없이 크게 확산되어 사용되고 있다. 현재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명칭 ‘아빠’는 아버지와 자녀 관계의 가까움의 표현이 되고 있고 호칭어 ‘엄마(母)’와 함께 가장 많이 그 힘을 발휘하고 있다.

표준어 ‘아빠’는 호칭과 지칭 모두 사용이 가능하지만 제주에서 ‘아방’은 지칭으로 쓰이고 있다. 따라서 제주 방언에서 ‘아방’은 지금까지 살펴본 ‘父’와 관련된 중세국어 중 ‘아비’와 대응되는 어휘이며, 평칭 ‘아비’에 인칭 접미사 ‘앙’이 첨가된 형태라 할 수 있다. 제주 방언에서 ‘아방’은 표준어와 같이 단순히 ‘親父’의 의미만 존속되지 않고 새로운 친척 어휘를 생성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예를 들면 ‘큰아방’, ‘족은 아방’, ‘시아방’, ‘가시아방’, ‘다슴아방’, ‘홀아방’ 등으로 이러한 다양한 친척 어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3.1.2. 어멍(母)

전체 친척 관련 어휘 중 그 특성이 가장 두드러진 어휘는 ‘母’에 관한 어휘일 것이

다. 혈연관계에서도 가장 가까운 관계라 여겨질 뿐 아니라 언어학적으로도 ‘母’를 부르고 지칭하는 어휘가 매우 다양하게 마련되었고, 친척 어휘 파생의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15세기 이래 ‘母’ 관련 어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古語로는 ‘어시, 어미, 어마, 어마님, 어마니, 어멈’ 등이 있다. 母의 대표 古語인 ‘어미’를 우선 살펴보고자 한다.

(13) 어미를 濟度호야 <釋譜 6:1>

그 어미씨 뵈으올식 <小學 4:44>

어미 子息 스랑툃 흐시느니 <楞嚴 5:85>

그 어마니논 <普勸 14>

위의 용례를 통해 중세국어의 ‘어미’는 母의 독자적인 명사로서 사용되었다. 또한 ‘젓어미’, ‘다습어미’, ‘스승어미’, ‘훗어미’, ‘동갓어미’ 등과 같은 복합어를 형성하는데 중심어 역할을 수행하였다.<sup>9)</sup> 용례를 살펴보면 ‘어미’는 여러 파생어의 핵어나 복합어의 구성 요소로 자리 잡았으며, 본래의 기능은 지칭으로 쓰였던 것으로 보인다. 근대국어에 들어서도 ‘어미’의 형태는 별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아래와 같이 20세기 초반에 사전에 의미의 변화가 나타난다.

(14) ㄱ. 어미: 1. 어머니를 친하게 일컫는 말.

2. 새끼를 낳은 암컷. <朝鮮語辭典>

ㄴ. 어미: 1. ‘어머니’를 낮추어 이르는 말.

2. 새끼를 낳거나 깐 동물의 암컷. <새우리말큰사전>

앞서 살펴본 바 중세국어 시기에 발견된 용례에서 ‘어미’는 母의 의미나 母의 의미를 기반으로 한 파생어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 그러나 근대국어 후반부터 현대국어에서 ‘어미’는 ‘母’의 의미를 가지고는 있되, 의미 가치가 하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어미’가 평칭보다 비칭의 기능으로 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9) 조항범(1996), 「국어 친족어휘의 통시적 연구」, 태학사, pp.73~74.

또한 母의 대표 어휘인 ‘어미’ 외에 표준화법에 거론된 ‘엄마’와 대응되는 古語 ‘어마’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후기 중세국어에 ‘어마’에 대한 문헌 용례는 잘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어마’라는 어휘가 호칭어로 많이 쓰였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문어보다는 구어로 더 활발히 쓰였을 것으로 보인다. 호칭어로 사용된 용례를 쉽게 발견할 수는 없지만, 흔히 우리가 아는 궁중어 ‘어마마마’의 ‘어마’, 지금도 사용하는 ‘엄마’를 통해 호칭 기능이 충분히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시대 변천으로 ‘어마>엄마’로 변형된 것은 국어 친척 어휘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현상 중 하나인 동음 첨가에 의한 어형 변화의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는 앞서 본 ‘아바>압바’도 마찬가지이다. 아래의 용례를 통해 ‘어마’의 어형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 (15) 근대국어의 ‘어마’

- ㄱ. 제 어미 샴곡을 신희야 <地藏經諺解 上 8>
- ㄴ. 제 엄미을 권ᄃ야 <地藏經諺解 上 8>
- ㄷ. 어마님 위ᄃ야 설범ᄃ더시니 <地藏經諺解 上 4>
- ㄹ. 보살의 엄마님이 성이 무어시러닐고 <地藏經諺解 上 13>
- ㅁ. 엄마 : 乳兒呼母, 阿媽 <國漢 >

위 예문 (15)에서 나온 ‘어미’와 ‘엄미’, ‘어마님’과 ‘엄마님’은 다 ‘母’에 관련한 어휘들이다. ‘어마’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15ㄱ)의 ‘어미’가 예시 (15ㄴ)에서는 후행 음 ‘ㅁ’이 첨가되어 ‘엄미’로 나타난다. 다음 (15ㄷ)은 ‘어마’의 존칭형 ‘-님’을 덧붙인 경우이고, (15ㄹ)은 현대에 이른 지금 우리 눈에 익숙한 ‘엄마’의 형태가 보이기 시작한다. 이렇게 한 문헌에서 한 어휘가 다양한 형태로 공존하여 나타나는 것이 특이한 점이다. 그러나 위에 나타난 ‘엄미’, ‘엄마님’은 그 세력을 잃고 소실되었으나 ‘어마’의 동음 첨가 형태인 ‘엄마’는 그 역할을 잘 자리 잡아 지금도 매우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 18세기 ‘엄마’의 등장과 함께 예시 (15ㅁ)을 통해 19세기 말에는 ‘아빠’와 동일하게 ‘엄마’도 유아어로 기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16) ㄱ. 엄마(母): 격식을 갖추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어머니’를 이르거나

부르는 말. <표준국어대사전>

ㄴ. 엄마(母): 어린 아이가 ‘어머니’를 다정하게 부르는 말.

<새우리말큰사전>

(17) 제주 속담 속 ‘어멍’

ㄱ. 유월 물이 그림덴 해도 어멍보단 더 안 그림나.

(유월 물이 그림다고 해도 어머니보다 더 안 그림다)

ㄴ. 어멍은 배고팡 죽곡, 아윈 배 터정 죽곡.

(어머니는 배 고파서 죽고, 아이는 배 터져서 죽고.)

현대국어에서 ‘엄마’는 그 의미 기능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으나 위 (16)의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엄마’는 그리 모든 상황에서 쓰이는 명칭이라 하기는 어렵다. 언어예절을 고려하여 격식이 필요한 상황뿐 아니라 화자의 연령에 있어서도 장년층 세대 이상은 ‘엄마’의 사용을 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편 지금까지 살펴 본 ‘어마’와 관련하여 김미정(2010:91)은 ‘母’를 뜻하는 ‘어마’에 ‘ㅇ’이 첨가된 ‘어망’에서 제1음절 모음 ‘ㅏ’에 이끌려 제2음절 모음이 변하여 제주 방언 ‘어멍’이 된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母’의 대표 고어인 ‘어마’가 호칭인 것으로 본다면 제주 방언 ‘母’의 대표 어휘인 ‘어멍’은 호칭보다는 지칭으로 쓰이고 있으므로 제주 방언 ‘어멍’은 평칭인 ‘어미’를 핵어로 보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그렇다면 제주 방언 ‘어멍’으로 형태 변화에 대해 ‘母’의 의미인 ‘어미’에 또 하나의 인칭접미사 ‘ㅇ’의 결합 형태로 쓰인 것이라 할 수 있다.<sup>10)</sup>

이러한 형태의 특수성을 가진 제주 방언의 ‘어멍’은 표준어의 ‘엄마’와 대응되는 친척 어휘이다. 호칭으로도 사용되는 표준어 ‘엄마’와 비교하여 제주 사람들이 실제 언어생활에서 ‘어멍’을 지칭에서만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언어예절에 있어 그리 적절치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보통 존칭 접미사 ‘-님’을 붙여 ‘어머님’을 주로 사용하며 이는 ‘아방’의 경우도 ‘아버님’으로 호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10) 문순덕(2003), 「제주 방언 문법 연구」, 세림, pp.321.

### 3.1.3. 하르방(祖父)

‘하르방’은 할아버지(祖父)를 뜻하는 제주 방언이다. ‘하르방’은 ‘아방’과 같이 古語 ‘한아비+양’의 형태이며, ‘한아비’는 ‘한-(大)+아비(父)’로 된 어휘라 할 수 있다. ‘하르방’, ‘하르바지’, ‘하르바님’과 같은 ‘祖父’ 관련 제주 방언은 지금도 古語의 형태가 남아 그 영향을 지금도 받고 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15세기 이후 祖父 관련 어휘를 시기별로 목록화하면 다음과 같다.

	중세국어	근대국어	현대국어
祖父	한아비 한아바 한아바님	한아비 한아바 한아바님 한아바니 한아바지 한아범	할아버지 할아버님 할아버지 할아버님

<표 7> 시대별 祖父 관련 어휘

중세국어에 대표적인 祖父의 명칭은 ‘한-아비’라 할 수 있다. ‘大’, ‘多’를 뜻하는 ‘한-’과 ‘父’를 뜻하는 ‘아비’가 합하여 된 ‘한-아비’를 통해 친척 위계상 父보다 상위에 있는 인물이라는 인식의 내용이 친척 어휘 명칭에 그대로 드러나 있다. 목록에 나온 ‘한-아바’는 단독적 용례가 문헌에 잘 보이지 않아 그 지시 의미를 파악하기에 용이하지 않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古語 ‘한-아비’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8) ㄱ. 世를 嗟歎호요몬 鹿皮 니븐 한아비로다 鹿皮 니븐 한아비로다

： 歎世鹿皮翁 <杜解 3:54>

ㄴ. 陶潛은 世俗을 에여 든니는 한아비니: 陶潛避俗翁 <杜解 3:58>

ㄷ. 늘근 한아비는 다물 너머 든거늘: 老翁踰牆走 <杜解 4:7>

ㄹ. 늘근 한아비를 주눣다: 付老翁 <杜解 10:14>

ㅁ. 늦양즈는 늘근 한아비 ㄷ외엿도다 <杜解 21:31>

ㅂ. 하나빌 미드리잇가 <龍歌 125章>

ㅅ. 祖는 한아비니 부텃 法 던디호야 <釋譜 24:4>

○. 한아버지 祖: 祖 <類合 上19>

- (19) 할아버지: 1. 부모의 아버지를 이르는 말.  
2. 부모의 아버지와 한 항렬에 있는 남자를 통틀어 이르는 말.  
3. 친척이 아닌 늙은 남자를 친근하게 이르는 말.

<표준국어대사전>

위의 용례를 보면 중세국어의 ‘한-아버지’는 모두 명사로 사용되었으며, 그 뜻은 현대국어 ‘할아버지’의 뜻과 동일하게 ‘祖父’뿐 아니라 ‘老翁’을 일컬었다.<sup>11)</sup> (18)의 ‘ㄱ~ㄴ’은 ‘老翁’로, ‘ㄷ~ㅇ’은 ‘祖父’의 의미로 쓰였다. 그러나 같은 의미라 할지라도 ‘한-아버지’는 현대국어에서는 사용되지 않고 있다. 그것은 19세기 넘어서면서 ‘한-아버지’의 의미 가치 하락에 따른 의미 변화와 ‘한아버지>할아버지’의 음운 변화의 영향 등 여러 요인이 작용한 결과라 여겨진다.<sup>12)</sup>

현대국어에서 ‘한아버지’ ‘할아버지’를 대신한 친척 어휘는 ‘할아버지’만 존재하지 않고 다른 지역마다 ‘할아버지’, ‘할아버’, ‘할배’ 등의 다양한 어휘들로 나타난다. 더불어 제주 방언에서는 ‘하르방’이 가장 대표적인 친척 명칭으로 쓰이고 있다.

제주 방언에서는 ‘曾祖父’를 ‘왕하르방’으로, ‘祖父’를 ‘성하르방’이라 하여 ‘왕-’, ‘성-’을 덧붙여 사용하기도 하여 활발히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더 나아가 ‘돌하르방’과 같이 늙은 남자를 친근하게 이르는 ‘할아버지’의 확대 의미를 담아 일반 어휘로도 활발히 쓰이기도 한다.

### 3.1.4. 할망(祖母)

우리나라는 경로사상이 강한 전통사회의 영향으로 노인에 대한, 가족 중 상위 가족원에 대한 존대 표현이 발달했을 가능성이 크다. 친척 조직에서 상위 친척원 중 하나인 ‘祖母’의 표준어는 ‘할미’, ‘할머님’, ‘할머니’, ‘할멈’ 등이 있고, ‘祖母’의 古語로는 평칭의 ‘할미’, ‘한어미’, 등이 있고, 존칭으로는 ‘할마님’이 있는데, 아래 용례를

11) 박은용(1979), “한국어의 친족호칭에 대하여”, 『女性問題研究』, 8, 효성여자대학교 부설 한국여성문제연구소, pp.44~45.

12) 조항범(1996), 위의 책, pp.154~160.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 姑曰漢丫彌 <鷄林>

늘근 할미 히미 비록 衰殘 ㅎ나 <杜解 4:8>

한어미(婆婆) <譯解 上 56>

여러 할미 ㄷ리고 <月釋 10:17>

할미 파(婆) <訓蒙 上 31>

할미 구(嫗) <訓蒙 上 33>

(21) ㄱ. 할미: (할머니를 低めたことば) ばあさん. <朝鮮語辭典>

ㄴ. 할미: 1. ‘할멈’(지체가 낮은 늙은 여자)의 낮춤말.

2. 늙은 여자가 손자, 손녀에게 자기 자신을 이르는 말.

<표준국어대사전>

위 (20)의 용례를 통해 중세국어 ‘한어미’, ‘할미’는 ‘祖母 항렬의 女子’의 의미로 지금의 ‘할머니’와 대응되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21)의 사전적 정의를 통해 근대국어의 후반부터 현대국어에 이르기까지 ‘할미’는 그 어형은 그대로 존재하나 비칭의 기능이 강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현대국어 ‘할미’는 친척 명칭에 서는 잘 쓰이지 않고 있으며, 간혹 제한된 환경에서 지칭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제주 방언 ‘할망’과 관련하여 평칭의 지칭어인 ‘할미’ 외에 존칭 ‘할마님’도 살펴보고자 한다.

(22) 할마님 唐夫人이 식어미 섬교물 효도로이 ㅎ야 <小學 6:26>

민셔방 제 할마님 싱이레 <청언 61>

위 (22)의 용례를 통해 ‘할마님’은 호칭보다는 지칭으로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예가 없어 ‘할마님’을 두고 ‘親祖母’나 ‘祖母 항렬의 女子’까지 그 의미를 포함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할미’가 지칭으로 쓰인 고어라면 호칭으로 쓰인 것은 ‘할마님’, ‘할마’를 들 수 있

다. 형태론적으로 ‘할마’는 우선 ‘母’의 호칭어 ‘아마’를 핵어로 삼아 ‘한-+아마’로 파생되었을 것으로 보인다.<sup>13)</sup> ‘한-아마’에서 비롯되었다고 가정하면 ‘할마’는 변화과정에서 ‘한아마>한마>할마’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근대국어 중반까지는 ‘할마’가 별다른 모습을 보이지 않다가 근대국어 후반기로 들어서면서 존재 자체를 확인하기 어렵게 된다. 그 원인은 ‘할마’의 역할을 다른 호칭어가 대체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조항범(1996:145)은 ‘할마니’의 등장한 이후인 19세기 전후로 ‘할마’가 사라졌다고 보았다. 즉 근대 국어 후반기에 평칭의 ‘할마’가 ‘할마니’로 어형이 바뀌게 되었고 존칭을 제외하고 현대국어에 와서 그 존재가 ‘할미’, ‘할머니’에 밀려 세력이 약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현대국어에서 고어가 남아 있는 어휘라 할 수 있는 것은 ‘할미’라 할 수 있는데, 이것 또한 표준어에서는 잘 쓰이지 않고 있다. 그러한 ‘할미’의 형태와 의미가 제주 방언에서는 ‘할망’으로 남아 있다. 평칭 ‘할미+양’의 형태로, 추측하건대 이는 ‘아방’, ‘하르방’과 같은 요인을 근거하여 분석해 볼 수 있다.

제주 방언 ‘할망’은 동일하게 평칭의 기능으로 호칭어보다 지칭어로 더 많이 쓰인다. ‘할망’은 표준어 ‘할머니’의 의미와 같이 친척 어휘에서 확대되어 일반 어휘로도 쓰인다. 예를 들어 ‘선문대 할망’, ‘가시할망’ 등이 있는데, 여기에서 ‘할망’은 ‘親祖母’에서 파생되어 ‘친척이 아닌 늙은 여자를 친근하게 이르는 말’의 뜻으로 쓰인다.

### 3.2. 傍系 관련 어휘

傍系血族은 본래 친척 범위가 넓고 복잡한 관계 구조를 갖고 있어 촌수와 향렬을 구분한 다양한 친척 명칭들이 존재한다. 이로 인해 사람들의 언어생활에서 촌수가 멀 경우 언중들이 낯설어하거나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제주 방언을 살펴보면 이러한 복잡한 친척 구조에서 사용의 간편화를 위해 화자가 부르거나 지시하는 대상이 다르더라도 같은 명칭으로 중복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나타난다. 여기서는 傍系血族의 범주가 넓어 제주 방언의 특색을 나타내는 명칭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3) 조항범(1996), 위의 책, pp.143~144.

### 3.2.1. 성(兄)

여기에서 제주 방언의 특징이 두드러지게 보이는 어휘는 ‘성(님)’이다. 흔히 표준화 법에서 남성화자가 손위 남성 형제에게 호칭어로 ‘형’ 또는 ‘형님’이라 부르고 그 배우자에게는 ‘형수님’이라 부른다.

제주 방언의 ‘성(님)’과 대응되는 한자어계 호칭인 표준어인 ‘형’(兄)은 중세국어의 ‘형’에서부터 그 형태가 발견된다. 다음은 중세국어에 나타난 ‘형’의 용례이다.

(23) ㄱ. 형 곤(昆) <類合 下 16>

ㄴ. 六親은 아비와 어미와 兄과 아스와 겨집과 子息과라 <內訓 1:2>

ㄷ. 우리 어미는 형이오 玆의 어미는 아시라 <翻譯老乞大 上 16>

ㄹ. 그 ㅸ 后入前母入兄의 ㅸ <內訓 上 2:42>

ㅁ. 큰형님이 이리 ㄷㅎ ㅸ드르 <翻譯老乞大 上 41>

예시 (23ㄱ), (23ㄴ)을 통해 ‘兄’의 대표적인 어휘가 ‘형’이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23ㄷ), (23ㄹ)을 살펴보면 ‘형’이 남성뿐 아니라 여성에게도 적용되어 성별의 제한 없이 확대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sup>14)</sup> 이는 동성 간이면 남녀 누구에게나 사용이 가능한 제주 방언의 ‘성’과 동일한 사용 범위이다. 그리고 (23ㅁ)은 ‘형’에 접두사 ‘큰-’의 사용 가능과 접미사 ‘-님’을 통해 존칭 기능까지 사용 가능한 것으로 보아 ‘형’이 여러 단어의 파생의 역할은 물론 호칭의 기능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24) 형이 우리 두 아을 브르시니 ㅸ슴 일이 잇느니잇고 <전비 1:2>

형과 아으과 ㅸ누의과 아으누의논 날로 더브러 <경민 4>

대던 형님이 누의님으란 어엇버 ㅎ고 <서궁 p.10>

형아 네 姓이 ㅸ엇고 <청노 1:10>

(25) ㄱ. 형: 1. 동기 중에서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

2. 자기와 같은 항렬에서 나이가 많은 사람. <朝鮮語辭典>

14) 조항범(1996:261)은 후기 중세국어 ‘형’이 친척관계에 아무런 제약 없이 사용되었으며 근대국어에서 일반어휘로서의 용법이 발견된다는 점에 친족어휘 뿐 아니라 일반어휘로도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측하였다.

ㄴ. 형: 동기나 또는 같은 항렬에서 나이가 많은 사람.

나이가 비슷한 친구 사이에 서로 상대방을 공대하여 부르는 말.

(친하지 않은 사이에) 나이가 적거나 또는 비슷한 사람을 공대하여 이르는 말. <새우리말큰사전>

위의 (24), (25ㄱ)의 예문들을 통해 근대 시기 ‘형’의 형태가 중세국어 시기와 크게 변화가 없었음을 보게 된다. 다만 위 용례들을 통하여 ‘형’이 친척 외에 일반 어휘로도 쓰인 사실을 알 수 있다. 현대국어에 들어서도 형태와 의미의 변화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것을 (25ㄴ)의 사전적 정의를 통해 알 수 있다.

현대국어에 이르면서 ‘형’은 남성 사이에서 주로 쓰이며 특수한 경우 여성 사이에서 간혹 사용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동서 간, 시누이와 올케 간의 경우 어느 정도 위계를 중시하는 상황이나 관계에서는 ‘언니’보다 ‘형님’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성 간에는 특수한 상황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은 의미 적용 범위상의 여성 적용 제한이 있음을 보게 된다. 그러나 친척 범위가 아닌 일반 어휘로서 여성 간에서는 ‘형’을 사용할 수 없다.

현대국어의 ‘형’과 대응되는 제주 방언인 ‘성’(兄)은 의미와 형태의 작은 변모를 나타낸다. 우선 형태로는 시기별로 ‘형>형>성>성’의 과정을 거친 것으로, 어두 자음이 ㅎ>ㅅ으로 된 것은 구개음화에 의한 변화이다.

‘성’은 친척원의 구성에서 형제의 수가 많을 경우 앞서 설명한 ‘큰-’, ‘셋-’, ‘죽은-’과 같은 항렬의 기능까지 덧붙여 사용할 수 있다. 형제가 만약 네 명일 경우 ‘큰성·셋성·말셋성·죽은성’이라 하고, 다섯일 경우 ‘큰성·셋성·큰말셋성·죽은말셋성·죽은성’으로, 형제가 여섯일 경우 ‘큰성·셋성·큰말셋성·셋말셋성·죽은말셋성·죽은성’이라 부른다. 형제가 일곱일 경우부터 ‘큰성’과 ‘셋성’은 그대로 두고 ‘말셋성’부터 ‘첫째 말셋성·둘째 말셋성’으로 차수를 붙이고 마지막에 ‘죽은성’이라고 한다.

의미상으로는 나보다 손윗사람의 형제를 대상으로 남성 간에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제주 방언에서는 ‘성님’으로 남성 사이에서는 물론, 여성 간에도 사용이 활발히 쓰인다. 또한 여성들의 대화 사용만 보더라도 고령층에서는 친척 범위뿐 아니라 이웃 간, 즉 친밀한 관계라는 전제하에 일반 어휘까지 지금도 ‘성님’은 자연스럽게 쓰이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성님’의 활발한 의미기능 확대 사용은 표준어

의 사용 양상과는 다른 면모를 보여준다. 앞서 말한 대로 표준어에서 ‘형님’이 친척 범위로는 흔히 발견할 수 있으나 일반 어휘로 여성 간의 쓰임은 발견하기 어려운 부분이라 할 수 있다.

### 3.2.2. 아주방

‘아지방(아주방)<sup>15)</sup>’은 주로 ‘伯叔父’의 의미를 가지는 제주 방언인데 중세국어 ‘아자비’에 인칭접미사 ‘양’이 첨가된 형태라 할 수 있다. ‘아자비’는 ‘父’의 ‘아비’를 핵어로 하고 ‘적다’는 뜻의 ‘앗-’을 접두 요소로 하는 파생 구조로 볼 수 있다.<sup>16)</sup> 이렇게 본다면 ‘아자비’는 그 의미가 ‘작은아버지’로 짐작해볼 수 있다.

다음 자료를 통해 15세기 중세국어에 표기된 ‘아자비’가 제주방언 ‘아주방’과 의미면에서 깊은 관련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26) 아자비 (아버지의 형제)

문 아자비 빅: 伯 <訓蒙 上31>

아자비 숙: 叔(石千15), <類合 上20>

아자비는 불근 門의 사느 貴호니오 <杜初 7:30>

승女の 아자비 상언호여(令女叔父上書) <翻小 9:60>

아자비는 아비 향렬이라 叔父行也 <五倫四 57>

#### (27) 아자비(외삼촌, 시아버지, 장인)

아자비 구: 舅(母之兄弟曰— 夫之父曰— 又妻之父曰—)(訓蒙 上31)

우리 아자비는 다 모다 일후물 아느다(吾舅盡知名)(杜初 8:62)

위의 자료와 같이 ‘아자비’는 크게 두 가지 뜻으로 해석되었다. 먼저 (26)의 용례를 보면 한자 ‘叔’과 ‘叔父’의 대역어로 ‘아자비’가 쓰임을 알 수 있다. 또한 (27) 용례를 통해 ‘아자비’는 ‘외삼촌, 시아버지, 장인’의 의미도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17)</sup>

15) 아주방: ① 여자가 자기 아우 남편을 부르는 말. ② 여자가 자기 남편의 아우를 부르는 말. =아지방 (「제주어사전」(200) 참고)

16) 박은용(1979), 위의 논문, pp.48.

17) 김태곤(2007), “ ‘아자비’와 ‘아자미’의 변천 연구”, 「언어학연구」, 12, 한국 언어연구학회, pp.25~26.

‘叔父’는 현재 작은아버지를 가리키지만, 중세국어에서는 아버지의 형제의 의미까지 모두 포함되었다.

조항범(1996:206)에서도 가족 중 한 부류에 속하는 삼촌 관계 인물인 伯父의 지칭어가 개별적으로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았으며, ‘아자비’의 본래 뜻은 叔父와 伯父를 포함하는 삼촌 관계의 인물이라 정의했다. 종합하면, ‘아자비’는 가족 구조 중 삼촌 영역에 속하는 남성 모두 해당하는 친척 어휘인 것이다. 현대에 이르러 방언에서도 이와 같은 아자비의 잔형을 볼 수 있는데, ‘아재비’, ‘아제’, ‘아재씨’ 등이 있다. 그 중 제주 방언의 ‘아주방’은 ‘시아버지’나 ‘장인’의 의미까지 포함하지는 않으나, 아버지의 형제의 평칭인 의미 기능으로 위의 근거한 ‘아자비’의 의미는 동일하게 사용된다.

제주 방언 ‘아주방’과 관련하여 호칭으로 보이는 ‘아자바’에 주목해야 한다. 형태론적 측면에서 ‘아바’를 핵어로 ‘앗-’의 파생어인 ‘아자바’가 ‘아바’의 계열 선에 있는 ‘한아바’ 및 ‘오라바’가 존재했음을 고려하면 ‘아자바’는 호칭으로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구어의 쓰임으로 인해 호칭인 ‘아자바’의 용례는 찾기 어려워 지칭인 ‘아자바님’의 용례를 아래 예시 (28)에서 살펴볼 수 있다.

(28) ㄱ. 내 아자바넝 棺을 메스바지이다 <月釋 10:10>

ㄴ. 가비라국에 가아 아바넝기와 아즈마넝기와 아자바내의 다 安否흐습고  
<釋譜 6:1>

또한 ‘아자바’는 근대국어에서 ‘아자바>아즈바’의 형태 변화로 나타나는데, ‘아즈바’의 관련 용례는 아래 예시 (29)와 같다.

(29) ㄱ. 아바 아즈바 네 싱심이나 (老者伯伯阿你敢那) <朴通事諺解 中 56>

ㄴ. 어와 더 족하야 밥 업시 엇디 흘고 어와 더 아자바 옷 업시 엇디 흘고  
<훈민가>

ㄷ. 그러나 그는 순일 아즈바님이 인스를 모르셔 실성하야  
<윤선도연간> (효종 8년)

위 (29)의 용례 모두 ‘叔父’를 뜻하는데 용례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평칭 ‘아자비’가 삼촌 이상의 친척원은 물론 外叔父, 媿叔을 지칭에서도 사용된 점을 고려하면 ‘아자바님’도 그와 같은 의미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단 친척 범위를 넘어 일반 어휘로 적용됐는지는 알 수 없다.<sup>18)</sup>

존칭 ‘아자바님’이 ‘叔父’는 물론 ‘伯叔父’의 의미 기능까지 담당하였다고 가정하면 제주 방언의 ‘아주방(아지방)’이 叔父외에 다른 친척원과 더불어 지칭으로 伯父도 사용이 가능하므로 의미기능이 동일하게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위의 (29ㄱ)의 ‘아즈바’는 호칭으로 사용된 모습이며 ‘叔父’의 의미를 띠고 있다. (29ㄴ)의 ‘아자바’는 호칭보다는 지칭의 기능에 쓰였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지칭인 ‘아자비’와 거의 의미 면에서 같을 뿐 아니라 동등하게 둘 다 사용되고 있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29ㄷ)의 ‘아즈바님’은 내용상 ‘伯父’의 의미이며, 존칭 ‘-님’의 사용은 시간이 흘러 말음 ‘ㅁ’이 탈락하여 ‘아즈바니’의 형태로도 나타난다. 이 ‘아즈바니’는 현대국어 ‘아주버니’로 이어지게 되고, ‘아즈바님’은 ‘아주버님’으로 나타난다.

<표 8> ‘아주방’ 관련 표준어와 제주방언의 사전적 정의

아주버님	아주바님
1. ‘아주버니’의 높임말. 2. 손위 시누이의 남편을 부르거나 이르는 말. <표준국어대사전>	1. 여자가 자기 언니의 남편을 부르는 말. 2. 여자가 동기 이외의 손위의 남자를 높이어 부르는 말 3. 여자가 자기 남편의 형을 부르는 말. <제주어사전>
아저씨	아주방(아지방)
1. 부모와 같은 항렬에 있는, 아버지의 친형제를 제외한 남자를 이르는 말. 2. 결혼하지 않은, 아버지의 남동생을 이르는 말. 3. 남남끼리에서 성인 남자를 예사롭게	1. 여자가 자기 아우 남편을 부르는 말. 2. 여자가 자기 남편의 아우를 부르는 말. <제주어사전>

18) 조항범(1996), 위의 책, pp.217.

이르거나 부르는 말. 4. 고모부나 이모부를 이르는 말. <표준국어대사전>	
---	--

사전의 정의를 통해 현대국어에 넘어오면서 두드러진 점은 父母의 형제인 ‘伯叔父’나 ‘外叔父’의 의미가 소실되고 시가(媿家) 호칭의 기능으로만 자리 잡았다는 점이다. 이러한 의미축소가 일어난 것은 대체 단어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가장 유력하다. ‘아주버님’이나 ‘아즈바님’의 대체 언어로는 父母의 형제와 같은 항렬의 ‘큰아버님’, ‘작은아버님’으로 생각된다. 현대국어 ‘아주버님’은 시가 관련 명칭 중 시가의 ‘男弟’의 의미는 사라지고 ‘男兄’의 의미만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伯叔父의 존칭을 제외하고 평칭인 ‘아즈비’는 현대국어에서 사전류에서조차 찾기 힘든 어휘가 되었다. 현재 ‘아제, 삼촌, 아주버니’ 등의 대체 사용이 많아짐에 따라 ‘아즈비’의 기능이 약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세력이 약화된 현상을 보이는 ‘아즈비’의 잔형이 제주 방언의 친척 어휘 중 ‘아주방’으로 발견할 수 있다. 제주 방언에서는 ‘아즈비’라 하지 않고 ‘아즈비’에 인칭접미사 ‘양’이 첨입되어 ‘아주방’으로 불리는 것이다.<sup>19)</sup> 제주 방언 ‘아주방’은 지금은 伯父, 叔父 그리고 이성(異性) 인척의 삼촌과 같은 친척 어휘와 더불어 일반 나이 든 남성을 부를 때도 쓰이고 있다.

### 3.2.3. 아주망

‘아주망(아지망)’은 손아래 제수나 올케를 부르거나 이르는 말이며, 중세국어 ‘아즈비’와 동일하게 ‘아즈미+양’의 결합 형태를 보이는 제주 방언이다. 어원을 살펴보면 중세국어에서 많이 쓰인 ‘아즈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 (30) ㄱ. 叔伯母皆曰了子彌 姨姪亦皆曰了子彌 <鷄林類事>  
 ㄴ. 아즈미 심: 嬪 (숙지처왈일낭 又一子 又——) <訓蒙 上 31>  
 ㄷ. 아즈미 수: 嫂(兄之妻曰一子 大一 小一) <訓蒙 上 31>

19) 문순덕(2014:53) 참고.

- ㄹ. 아즈미 고: 姑(父之姉妹曰一 又一娘 又夫之母曰一) <訓蒙 上 31>  
 ㅁ. 여러 아즈미 이제 바룻 ㅁ식 갓고: 諸姑今海畔) <杜初 8:38>  
 ㅂ. 아즈미 이: 姨(母之姉妹俗呼兩一 夫呼妻之姉妹亦曰一) <訓蒙 上 32>  
 ㅅ. 아즈미 금: 姪(母之兄弟之妻曰一母 一子 舅母又兩壻相謂曰連姪)  
 <訓蒙 上 31>

위의 용례 (30ㄱ)을 통해 중세국어의 ‘아즈미’가 ‘了子彌’으로 나타난다. 또한 ‘아즈미’는 (30)의 ‘ㄴ~ㅅ’의 순서대로 ‘아버지 형제의 아내’, ‘형제의 아내’, ‘고모’, ‘시어머니’, ‘이모’, ‘처형’, ‘처제’, ‘외숙모’ 등을 뜻하는 호칭 및 지칭으로 사용되었다.<sup>20)</sup> ‘아즈미’는 형태와 의미 면에서 앞서 본 ‘아자비’와 대응된다. ‘아자비’가 ‘父’의 ‘아비’에 ‘少’, ‘微’의 ‘앗-’의 결합 구조라면 ‘아즈미’가 여성을 뜻한다는 점에서 그 형태가 ‘母’의 ‘어미’에 ‘앗-’의 파생어로 간주할 수 있다.<sup>21)</sup> 파생 시기에서도 근대국어로 넘어오면서 ‘아자비’의 외형이 ‘아즈비’로 바뀐 점도 근거에 뒷받침한다.

용례를 보아 ‘아즈미’와 ‘아즈비’가 주로 가리키는 대상과 향렬이 서로 같고, ‘아자비’가 가지는 伯叔父, 外叔父, 父母 향렬의 男子 등 이러한 의미를 살펴볼 때 이 두 어휘는 대응관계라 할 수 있다.

‘아즈미’는 18세기에 잘 나타나지 않다가 19세기부터 ‘아자면이>아자마님’으로 이어지게 된다.

- (31) ㄱ. 아자마님: 1. 父母と同列の男子(父母の兄弟以外)の妻又は姑母.  
 2. 兄弟又は自己と同列の男子の妻. <朝鮮語辭典>  
 ㄴ. 아주머니: 1. 부모와 같은 향렬되는 여자. 곧 아저씨의 안해.  
 2. ‘고모’와 같음.  
 3. 형제 또는 자기와 같은 향렬되는 남자의 안해.  
 <朝鮮語辭典>

20) 김태곤(2007), 위의 논문, pp.7~8.

21) ‘아즈미’의 ‘앗-’의 파생 구조의 주장은 이기문(2005), 박은용(1979), 조항범(1996)의 ‘아즈미’의 형태론적 논의를 따랐다.

위의 예 (31ㄱ)은 첫 번째 뜻으로 ‘아자마님’을 ‘姑母’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으며 두 번째 뜻으로 ‘자기와 같은 항렬의 妻’, 즉 ‘兄嫂’와 ‘弟嫂’ 모두 쓰일 수 있다. 현대국어에서 兄嫂를 ‘아주머님’이라 부르기도 하지만, 弟嫂의 의미로 ‘아주머님’의 사용은 쉽게 보이지 않는다. 즉 표준어에서는 현재 ‘아주머니’는 같은 항렬 중 남자 손아래 형제의 아내를 뜻하는 ‘弟嫂’의 의미로는 사용하지 않으며 주로 弟嫂를 뜻할 때는 ‘제수씨’라 부르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표준어 ‘아주머니’와 달리 제주 방언은 의미변화를 크게 겪지 않고 지칭으로 ‘아주망’을 ‘弟嫂’에게도 적용된다는 점에서 지역적 특색이 나타난다.

‘아즈미’와 등장 시기, 의미가 같은 친척 어휘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아즈마’이다. ‘아즈마’는 그 형태는 앞서 본 ‘아자마’의 경우와 같은 계열로 母의 호칭인 ‘아마’를 핵어로 파생된 구조로 볼 수 있다.<sup>22)</sup> 이러한 추측에 근거하면 ‘아마’가 핵어로 확대되어 여러 친척 어휘들에게 영향을 주어 파생 형태를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아즈마’뿐 아니라 ‘한아마>한마>할마’의 변화 과정을 통해서도 ‘한-’에 ‘아마’가 더해진 파생 구조를 들 수 있다. 여러 견해를 종합하면 ‘아즈마’에는 ‘母’의 의미를 포함한다는 것에서는 ‘아즈미’와 동일하나 기능에서 호칭의 기능이 강한 것으로 추정된다. ‘아즈마’는 ‘아즈마>아즈마>아주마>아줌마’의 변화과정으로 현대국어의 ‘아줌마’와 대응되는데, 「새우리말큰사전」(1985)에는 ‘아줌마’를 ‘아주머니’의 낮춤말로 기록되어 있다. 아래 <표 9>는 제주 방언 ‘아주망’과 의미와 형태 면에서 비슷한 현대국어를 사전에서 찾아 정리한 것이다.

<표 9> ‘아주망’ 관련 표준어와 제주방언의 사전적 정의

아주머님	아주마님
1. 부모와 같은 항렬의 여자를 이르거나 부르는 말의 높임말	1. 남자가 형수를 부르는 말.
2. 남자가 같은 항렬의 형뻘이 되는 남자의 아내를 이르거나 부르는 말의 높임말.	2. 남자가 동기 이외의 순위 여자를 높이어 부르는 말. <제주어사전>
3. 남남끼리에서 결혼한 여자를 예사롭게	

22) 조항범(1996), 위의 책, pp.183.

이르거나 부르는 말의 높임말. 4. 형의 아내를 이르거나 부르는 말의 높임말. 5. 손위 처남의 아내를 이르거나 부르는 말의 높임말. <표준국어대사전>	
아줌마	아주망
1. ‘아주머니(남남끼리에서 결혼한 여자)’를 낮추어 이르는 말. 2. 어린아이의 말로, ‘아주머니’를 이르는 말. <표준국어대사전>	1. 남자가 제수를 부르는 말. 2. 남자가 동기 이외의 손아래 여자를 부르는 말. <제주어사전>

현대국어 ‘아줌마’는 비칭의 기능으로는 제주 방언 ‘아지망’과 대응되나 의미 면에서는 ‘아줌마’가 ‘아주머니’가 가지고 있는 친척원의 의미를 담고 있지 않으므로 여기서는 ‘아주머니’의 의미와 대응하여 살펴보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제주방언 ‘아주망’에 대해 형태론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아자미>아즈미>아즈미>아주망’의 어형 변화를 겪었다고 할 수 있다. ‘아즈미’가 ‘아자미’로 비롯되었다고 본다면 ‘아즈미’의 어형 변화는 음운론적으로 비어두 음절에서 ‘아>으’의 변화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즉 ‘아즈미’가 ‘앗-’과 母의 호칭인 ‘아마’와 결합했음을 짐작해 볼 때 ‘앗-’의 모음에 이끌려 된 ‘아자미’가 뒤에 ‘으’로 변환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아자미>아즈미’의 변화 과정이 성립된다고 할 수 있다. 평칭 ‘아주미’가 앞에서 다룬 ‘아주방’과 마찬가지로 인칭접미사 ‘앙’이 침입되어 ‘아주망’이 된 형태는 제주 방언의 특성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표 9>를 통해 제주 방언 ‘아주망’의 존칭형으로 ‘아주마님’이 쓰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주마님’은 ‘아즈마’에 접미사 ‘-님’이 결합된 형태로 ‘아즈마님>아즈마님>아주마님’의 과정을 거친 것으로 보인다. 이와 대응되는 현대국어로는 ‘아주머님’이 있는데, ‘아주머니’의 존칭형이다. 앞서 II장에서 사용 양상을 살펴본바 제주 지역에서는 주로 남성 화자가 손아래 여자 친척원을 부르는 호칭으로 ‘아주망’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처가 쪽일 경우 ‘치아주망’으로 구분하여 사용한다. 지칭으로는 간혹 손위 여자 친척원에게 사용되기도 한다.

### 3.2.4. 오라방

제주 방언의 ‘오라방’은 ‘男兄’를 의미하는 말이다. 현대국어에서 남자 형제를 대상으로 동성(同姓) 간에 사용하는 대표적 친척 어휘로는 ‘형, 동생, 아우’이고 이성(異性) 간의 친척 어휘로는 ‘오라비, 오빠, 오라버니’ 등이 있다. 이를 통해 성별에 따른 구별 사용이 확실한 것을 알 수 있다. 제주 방언 ‘오라방’의 시대별 변천을 보면, 古語 ‘오라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오라비’는 그 형태에서 ‘父’의 ‘아비’와 ‘을-(부)’이란 접두사와 ‘아비(父)’가 결합하여 과생된 구조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구조를 바탕으로 ‘오라비’의 의미는 ‘父’와 같은 나이로 바라보기보다 ‘父’와 같은 성별로, ‘父’보다는 어린 남자로 파악할 수 있다. 호칭 및 지칭의 대상은 남자 형제이지만 중요한 것은 화자는 반드시 여성이라는 조건에 성립되어야 가능하다는 점이다.

(32) ㄱ. 너 형데는 어떡오랍의 즈식 <家禮 6:27>

ㄴ. 오라비 문성국이란 놈이니 그 거슬 별감으로 사랑흐시고

<한중록 p.176>

ㄷ. 그러키에 너다려 혼즈 가라는 것이 아니라 네 오라비 장쇠를 다리고  
갈지니라 <장화홍련전>

(33) 오라비: 1. 오라버니’의 낮춤말.

2. 여자가 남에게 자기의 남동생을 이르는 말.

3. 여자의 남자 형제를 두루 이르는 말. <표준국어대사전>

(32ㄱ)의 ‘오라비’는 ‘男兄弟’, (32ㄴ)의 의미는 ‘男兄’, (32ㄷ)의 의미는 ‘男弟’로 사용된 것이다. 이것을 참고하면 향렬이 같은 남자 사이에서 손윗사람, 손아랫사람 모두를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33)의 사전적 정의를 통해 근대국어 후반기 이후부터 지금까지 ‘오라비’에 대한 의미는 남자 형제(男兄, 男弟)로 계속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손윗 남자 형제의 의미는 평칭으로 가치가 하락한 것은 무시할 수 없다. 현대국어에서 평칭인 ‘오라비’가 여전히 남아있지만, 실제 표준어에서는 잘 쓰이지는 않고 있다.

여기서 지금까지 살펴본 중세국어에서 ‘오라비’는 평칭의 지칭어라면 호칭어로는

‘오라바’가 존재하였을 것이다. 본래 ‘오라비’의 형태를 고려하면 ‘오라바’도 ‘올-(早)’ 접두사와 ‘父’의 ‘아바’로 파생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sup>23)</sup> 그 의미는 앞서 본 ‘오라비’와 동일함으로 생략하도록 하겠다.

오늘날 많이 쓰이지는 않지만 그 세력을 유지하고 있는 ‘오라비’에 비해 우리에게 ‘오라바’가 그리 익숙하지 않은 이유는 그 형태가 현대국어 시기에서 ‘오빠’로 바뀌어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라바’는 시대별로 근대국어에서도 크게 형태 변화가 없다가 현대국어에 이르러 ‘오라바>올바>오바>옵바>오빠’로 변천 과정을 거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오라바’는 형태가 ‘오빠’로 바뀔 뿐 아니라 ‘男兄’, ‘男弟’의 의미에서 ‘男兄’으로 의미가 축소되어 여성 화자가 손윗사람을 부르는 어휘로만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현대국어에서 부르고 가리키는 대상에서는 ‘오라비’, ‘오라버니’와 동일하나 나이가 든 사람에게는 쓰이지 않는다 .

한편 ‘男兄’의 의미와 평칭의 기능에서 제주 방언 ‘오라방’과 대응되는 어휘는 ‘오라비’라 할 수 있다. 제주 방언 ‘오라방’도 호칭에서는 존칭 ‘-님’을 붙인 ‘오라바님’을 붙여 쓰이며, 지칭으로 주로 사용 하고 있다. 제주 방언의 ‘오라방’은 ‘오라비’에 인칭접미사 ‘앙’이 첨입된 어형이다. 이는 앞서 본 친척 어휘들과 동일한 구조이다. ‘오라방’은 ‘男兄’의 대표 어휘이지만 앞서 밝힌바 일부 지역에서 ‘男弟’의 의미로도 간혹 쓰이기도 한다.

### 3.2.5. 아시(弟)

제주방언 ‘아시’는 화자를 중심으로 자기보다 나이가 적은 동기(同氣 )를 지칭하는 어휘이다. 다시 말해 ‘동기(同氣)’, ‘손아랫사람’, ‘동성(同性)’이라는 조건이 성립되어야 가능하다. 제주 방언 ‘아시’는 현대국어 ‘아우’와 대응되는데, ‘아시’의 어형 변화 과정을 살펴보면 ‘아스>아스>아스>아시’로 추정할 수 있다. 먼저 중세국어에서 ‘弟’를 뜻하는 어휘인 ‘아스’ 관련 용례를 아래에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34) ㄱ. 부텃 아스 難隨 | 出家호은 인연으로 <月釋 7:11>  
 ㄴ. 우리 어미는 형이오 더의 어미는 아시라 <飜老 上 16>  
 ㄷ. 淨飯王스 아스니몬 白飯王과 斛飯王과 甘露飯王이라 <月釋 2:1>

23) 조항범(1996), 위의 책, pp.328~329.

ㄹ. 문누의와 아스누의와 쫘왜 호마 婚姻호야 도라왔거든 <內訓 1:5>

위 (34ㄱ), (34ㄴ)의 ‘아스’는 각각 남성, 여성에 해당하는 것으로 모두 남녀 상관없이 지칭하였고, ‘弟’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단, 이후로 현대국어에 나타날 ‘아우’의 용법을 전제하면, 이때 당시에도 사용 범위는 동성(同姓) 간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제약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아스’는 근대국어 전기 이후로 ‘아스>아으>아오, 아우’로 바뀌는데<sup>24)</sup>, 제주에서는 현대국어 ‘아우’도 사용하지만 ‘아시’가 더 일반적인 편이다.

또한 (34ㄷ)의 용례를 살펴보면 ‘아스님’으로 존칭 접미사 ‘-님’이 결합된 특징이 눈에 띈다. ‘-님’과 같은 접미사는 주로 호칭어에 사용되는 특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아마 이때 ‘아스님’은 호칭어라는 추측을 해볼 만하다. 또한 ‘아스님’의 존칭이 표준어 ‘아우님’으로 남아 있고, 그 의미 또한 사전에서 ‘아우’의 높임말로 제시되어 있는데, 이는 나이가 든 아랫사람을 대접해서 부르는 호칭어로 일컫는 것이다.

(35) 위나라 조상의 스촌아으 문숙의 처는 하후 문녕의 쫘이니 <五倫 3:21>

늑촌아으 경빅의 부체 흥년을 만나 <五倫 4:29>

당신 아오님을 먼니 스랑호오시는 뜻이오 <한중록 p.6>

아으누의(妹子) <譯語類解 上 57>

아으아자비(叔父) <老乞大諺解 下 3>

위 (35) 용례와 같이 근대국어 이후 ‘아스’는 ‘아으’로 변화된 형태를 보인다. 예문의 ‘아으’를 살펴보면 독자적인 명사로 親弟뿐 아니라 ‘親戚의 弟’의 뜻까지 포함하는 것을 알 수 있다. 19세기 이후로 ‘아으’는 ‘아오’, ‘아우’ 등으로 변화된 형태를 보이게 되었다.

(36) ㄱ. 아오: 弟 Younger brother; younger sister—used only between or in reference to persons of the same sex. <韓英>

ㄴ. 아우: 1. 동기간에서 자기보다 나이가 적은 사람.

24) 박은용(1979), 위의 논문, pp.41~43.

2. 자기와 같은 항렬에서 나이가 적은 사람. <朝鮮語辭典>

ㄷ. 아우: 1.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사이거나 일가친척 가운데 항렬이 같은 남자들 사이에서 손아랫사람을 이르는 말. 주로 남동생을 이룰 때 쓰는 말.

2. 나이가 든 친한 여자들 사이에서 나이가 많은 사람이 나이가 적은 사람을 이르거나 부르는 말. <표준국어대사전>

위의 (36ㄱ), (36ㄴ)에 따르면 ‘아오’와 ‘아우’는 같은 성별의 친척만 사용이 가능하다.<sup>25)</sup> 그러나 현재 「표준국어대사전」(1999) 및 다른 사전류에서는 ‘아우’를 위의 (36ㄷ)의 첫 번째 뜻을 유지하되 두 번째로 일반 어휘의 기능까지 포함한다. 그러나 현대국어에서 ‘아우’는 주로 친척 어휘로 사용되며, 일반 어휘로는 ‘동생’의 세력에 밀려 ‘친한 친구의 愛稱 및 弟’의 의미로 변하였다.<sup>26)</sup>

이렇게 표준어에서 사라져가는 ‘아스’의 흔적이 보이는 것이 제주방언 ‘아시’이다. ‘아시’는 ‘아스’의 기능처럼 성별과 관계없이 사용이 가능하나 대체로 여동생을 부르거나 이룰 때 사용한다. 또한, 존칭 ‘아스님’처럼 제주 방언에서도 지칭어인 ‘아시님’이 존재한다. 제주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지는 않지만, 나이가 든 아우(弟)에게 이름을 부르기 곤란한 상황이나, 혹은 같은 항렬의 친척임에도 연배가 비슷한 경우에 부를 수 있다. 그러나 현 제주에서 ‘아시’도 표준어 ‘아우’처럼 연령이 높은 층 중심으로만 거의 사용하고 있으며, 현지조사 중 조사대상자들 대부분은 자신의 손자들은 ‘아시’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답할 만큼 현 젊은 세대들의 사용 인식이 매우 낮은 편이었다.

### 3.2.6. 동생(弟)

제주 방언에서 ‘弟’의 대표 어휘는 ‘동생’이다. 표기상의 차이일 뿐 표준어에서 ‘弟’의 대표적 어휘인 ‘동생’과 의미는 같다. 현재 전 지역에서 ‘弟’를 부르고 가리킬 때, 앞서 본 ‘아우’보다 ‘동생’이 훨씬 활발하게 쓰이고 있다. 지금의 ‘동생’은 그 의미와

25) 조항범(1996)은 ‘아오’의 정의가 친척에서만 한정되어 적용하는 것은 ‘아우’의 주된 기능인 친척 어휘로서 기능을 지나치게 강조한 결과라고 보았다. 앞의 책, pp.281~282.

26) 김규선(1987), “국어 친척어의 연구”,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pp.67~68.

문법적 기능이 고어 ‘동싱’과 사뭇 다르게 사용되었다. 아래에 나타난 중세국어의 용례를 통해 ‘동싱’의 쓰임을 살펴볼 수 있다.

(37) 동싱형(哥哥) <飜老 下 34>

동싱아스(兄弟) <飜老 下 34>

(38) 형혀 늘근 어미 잇고 녀는 동싱이 효양허리 업스니(幸有老母無他兄弟)

<飜小 9;55>

아으와 동싱의 즈식들히 <小學 6:20>

동싱 형데게 난 아촌쫘 <飜老 下 31>

위 용례 (37)의 ‘동싱’은 체언 앞에 놓여 체언의 내용을 자세히 꾸며주는 관형사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관형사와 함께 위 (38)의 ‘동싱’을 통해 단독 명사로도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의미 면에서는 (37)에서는 ‘함께 태어났다’는 의미로, (38)의 ‘동싱’은 ‘한 배에서 태어난 사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단 여기서 문법적 기능에서 용례 (37)의 ‘동싱’은 뒤에 오는 명사를 수식하는 기능이 강하며, 용례 (38)에서는 독자적으로 쓰인 명사라는 점에서 이 시기의 ‘동싱’은 ‘弟’의 의미보다 ‘한 배에서 태어난 형제’를 뜻하며, 보다 상위개념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당시 ‘弟’의 사용은 평칭의 ‘아스’, 존칭의 ‘아스님’이 가장 활발히 쓰여 ‘동싱’의 사용이 적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39) ㄱ. 동싱누의 가 대공 <家禮圖 14>

동싱형데<家禮圖 14>

ㄴ. 촌수 먼 형데도 동싱궂티 하여 <五倫行實圖 4:45>

턴지간의 업슨 대변을 만나 아바님과 뭇동싱을 주겨시니 내 즈식의

일로 어버의게 큰 불회 되어서니 <서궁 p. 36>

쇠동싱님네 집 말숨을 일절 몬흐읍게 흐읍쇼셔 <송시열언간>

위 용례 (39ㄱ)을 통해 ‘兄弟’의 의미로 중세국어 ‘동싱’의 의미와 별 차이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39ㄴ)을 보면 문법적 기능이 앞서 본 시기보다 명사의

기능이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특히 ‘뭇동성’이나 ‘식동성님네’와 같이 파생의 역할을 수행한 것을 통해 ‘弟’의 의미 강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명사의 ‘동성’은 한 부모에서 태어난 ‘兄弟’의 의미를 총체적으로 다룬 상위개념으로 ‘男性’뿐 아니라 ‘女性’의 형제까지 아울러 ‘姉妹’도 포함한다. 또한 ‘同氣’(형제와 자매 그리고 남매를 아우르는)의 의미로 쓰였기 때문에 손아랫사람의 형제뿐 아니라 연령이 자신보다 높은 형제까지도 제한받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40) ㄱ. 동성: 同生 Younger brothers or sisters. <韓英>

ㄴ. 동성: 弟又は妹の稱. <朝鮮語辭典>

동생: 1. 형제·자매 중 자기보다 나이가 적은 사람.

2. 자기와 같은 항렬에서 나이가 적은 사람. <朝鮮語辭典>

ㄷ. 동생: 1.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사이거나 일가친척 가운데 항렬이 같은 사이에서 손윗사람이 손아랫사람을 이르거나 부르는 말.  
2. 항렬이 같은 사이에서, 손윗사람이 혼인한 손아랫사람을 이름 대신 부르는 말. <표준국어대사전>

위의 (40)의 ‘ㄱ~ㄴ’은 ‘동성’에 대한 20세기 초 간행된 사전의 정의이다. 이 시기에 나타난 의미 해석이 현대국어의 ‘동생’을 정의한 (40ㄷ)과 같이 ‘弟’로 한정된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위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이 시기부터 ‘동성’은 ‘同氣’로서의 의미는 사용할 수 없게 되는데, 즉 더 이상 ‘형’, ‘오라버니’, ‘언니’의 의미는 상실하게 된다. 언제부터 弟의 의미로 축소되었는지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으나 근대국어 시기 평칭 ‘아우’와 함께 쓰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존칭 ‘아우님’이 존재하는 ‘아우’와 달리 이 시기 ‘동성’은 평칭으로만 사용되었다.

현대국어에 이르러 ‘동생’은 ‘아우’보다 세력이 더 강화되고 의미 적용이 친척에서 일반 어휘까지 적용되어 ‘弟’ 관련 대표 어휘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40ㄷ)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동생’이 연령의 구분은 있으나 성별의 제약은 없어 화자가 ‘손아랫사람’을 이르거나 부를 때 동성(同姓) 간은 물론 이성(異性) 간 사용도 가능하다.

제주 방언 ‘동생’과 현대국어 ‘동생’은 그 의미와 쓰임에서 같지만 방언의 특색이 보이는 점은 ‘동생’이 발음에서는 큰 차이가 없으나 어형에서 고어의 모습이 남아

있다는 점이다. ‘동생’은 다른 말로 ‘동승’, ‘동싱’이라고도 하는데, 이 어휘들 또한 고어 ‘동싱’의 영향으로 보인다. 고어 ‘동싱’의 ‘·’(아래아)의 발음상 어려움으로 ‘동승’이나 ‘동싱’으로 바뀐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동싱’과 같이 구어(口語)에서 사용이 줄어들 뿐 문어(文語)의 표기에서 제주 방언의 ‘·’(아래아) 사용은 타지방에 비해 매우 흔하고 익숙한 편이다. ‘·’(아래아) 사용의 관련 친척 어휘로는 ‘아들’이나 ‘딸’을 들 수 있으며, 일반 어휘에도 ‘드리’(橋), ‘놋’(面), ‘잠’(眠) 등의 수많은 일반 어휘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이러한 고어를 유지한 ‘동생’, ‘동승’, ‘동싱’은 제주 사람들에게 낯선 명칭이 아니라 대부분은 ‘弟’로 쉽게 통용되고 있다. 제주에서 ‘동생’은 어형에서 표준어와 차이가 있음에도, 시간이 흐를수록 방언 사용 인식의 약화와 비슷한 발음상의 이유로 표준어 ‘동생’의 세력에 밀려 사라져가고 있다.

### 3.3. 姻戚 관련 어휘

제주 가족 조직의 처가 관련 어휘 중 가장 특수성이 나타나는 어휘는 ‘가시아방’과 ‘가시어멍’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처의 부모’를 뜻하는데, 제주방언 ‘가시’는 옛말인 ‘갓(妻)’에서 온 단어이다. 표준어에는 한자어계를 그대로 사용하여 ‘장인’(丈人), ‘장모’(丈母)가 있는데, 이는 지칭으로만 사용되며 호칭으로는 존칭 ‘장인어른’, ‘장모님’으로 쓰인다. 제주에서는 ‘가시아방’과 ‘가시어멍’이 평칭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호칭보다는 지칭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구어로는 자주 사용하지 않고 있다. 간혹 고령층 사이에서 ‘장인’, ‘장모’를 향해 존칭인 ‘가시아바님’, ‘가시어마님’으로 쓰이는 정도이다.

형태론적으로 ‘가시’는 ‘아내’ 또는 ‘아내의 친정’을 뜻하는 ‘갓’(妻)과 속격인 ‘익’가 결합된 형태이다. ‘갓’의 용례를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41) ㄱ. 닐굽 아드러러니 여섯 아들란 혀마 갓 일으고 <釋譜 6:13>
- ㄴ. 臣下이 갓들히 다 모다 夫人 侍衛혀스바 <月釋 2:28>
- ㄷ. 妻는 가시라 <月釋 1:12>

ㄹ. 가시며 자식이며 도라향여도 <月釋 1:13>

ㄱ. 가식 樣 무르시고 눈먼 날 무러시닐 (月釋 7:5)

위 (41)의 용례에서 ‘갓’이 ‘妻’의 고유어로서 그 의미 기능을 활발히 수행한 것을 알 수 있다. ‘갓’은 나아가 ‘갓나히’, ‘가시내’와 같은 ‘계집아이’라는 뜻의 복합어를 생성하는데, ‘妻’ 외에 ‘女’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그러나 여러 용례를 통해 ‘女’의 지시 의미보다는 ‘妻’의 의미로 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16세기 이후 ‘갓’은 ‘겨집’, ‘안해’, ‘각시’의 명칭으로 의미기능을 대체 수행하면서 ‘갓’의 형태는 소실되고 지금은 남부 방언에서 ‘가시내’(계집의 뜻)로 ‘처녀’의 뜻으로 그 흔적을 남기고 있다. ‘갓’의 독자적 사용은 소실되고 점차 결합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결합된 형태는 위 (41ㄱ)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여기서 나온 ‘가식’은 ‘아내의’라는 뜻이고, ‘갓’의 속격 ‘익’의 결합형이다.

또한 ‘갓’(妻)은 소유격형에서 나아가 ‘가식엄’과 같이 복합어의 선행 요소로도 활용되었다. ‘가식엄’은 지금의 ‘妻의 母’를 일컫는데, 관련 용례는 (42)와 같다.

(42) 가식엄이 뵈는 네도를 뭇고 <飜小 9:59>

또 가식엄의 솜에 목경이 보여 날오디 <普勸文18>

(42)에서 ‘가식엄’이 현 제주 방언의 ‘가시어멍’이 갖고 있는 ‘丈母’의 의미를 똑같이 갖고 있다. 이러한 ‘妻의 母’에 대한 고유어인 ‘가식엄’의 어형과 의미를 제주 방언 ‘가시어멍’에서 찾을 수 있다. 반면 ‘丈人’에 대한 고유어는 문헌에서 찾을 수 없지만 제주 방언 ‘가시어멍’ 뿐 아니라 ‘가시아방’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丈人’에 해당하는 고유어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 된다.

따라서 제주 방언의 ‘가시아방’과 ‘가시어멍’은 고어 ‘갓(妻)’의 형태를 간직할 뿐 아니라 의미까지 ‘妻父母’에게만 해당한다<sup>27)</sup>는 점에서 고유어계의 중요 친척 어휘라 할 수 있다. 다음은 제주 방언의 속담을 통해 ‘가시아방’, ‘가시어멍’이 실생활에서 사용 하는 예를 살펴볼 수 있다.

27) 문순덕(2003:316) 참고.

(43) 제주 속담에서 나타난 ‘가시아방’과 ‘가시어멍’

ㄱ. 다스(서)흔 땀 가시아방 와도 조름으로 절흔다.

(바쁠 때는 장인어른이 오셔도 엉덩이로 절한다.)

ㄴ. 가시어멍 눈 메를 사위 (장모 눈 망가뜨릴 사위)

ㄷ. 가시어멍 장 웃인 간에, 사위 국 실픈 간에.

(장모 장(醬) 없는 터에, 사위 국 싫은 터에.)

ㄹ. 국 하영 먹으면, 가시어멍 눈 땀라진다.

(국 많이 먹으면, 장모의 눈이 망가진다.)<sup>28)</sup>

(43)의 제주 속담을 통해 ‘가시아방’, ‘가시어멍’이 고유어계를 유지하여 활발히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의 예시들은 ‘妻의 父母’을 지칭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표준어에서는 지칭에서도 흔히 존칭인 ‘장인어른’, ‘장모님’이라 하지만, 제주도에서는 지칭어에서는 ‘가시아방, 가시어멍’이라는 평칭을 사용한다. 처가(妻家)와의 심리적 관계가 가깝고 친숙함의 의미로 지칭에서는 존칭을 잘 쓰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방언 사용 인식의 약화로 구어의 사용에서는 쉽게 찾을 수 없으며, 방언 관련 자료나 실생활에서는 옥외 광고와 같이 제주의 지역적 특색을 알릴 경우에 사용하고 있어 실제 담화 사용에서의 세력은 점차 약해져 가고 있다.

---

28) 사위가 국을 많이 먹으면, 국을 끓이는 동안 부엌의 연기(煙氣)로 인해 장모의 눈이 망가진다는 말.

## V. 결론

제주도의 가족조직은 기본적으로 한국 사회문화의 한 부분이면서, 기초적 어휘인 친척 어휘를 발달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배경을 드러내고 있다.

이 연구는 제주 친척의 구성 배경을 바탕으로 나타난 친척 어휘들을 조사하고 개별 어휘들의 특성을 기술하고자 하였다. 그동안 제주 방언의 연구 중 친척 명칭이 가장 기초적이고 실생활에 쉽게 접할 수 있어 제주 방언 연구의 큰 관심사는 아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친척 명칭이 그 특성상 주로 구어로 사용되어 다소 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정리하고자 이 연구에서는 가족 구성에 따라 크게 ‘直系’, ‘傍系’, ‘夫婦’ 관련 어휘 유형으로 나누어 분류하였다. 친척 어휘들을 분류하는 과정에서 「표준화법해설」(1992), 「제주어사전」(2009) 등을 비롯한 기본 사전류를 참고하였으며, 방언 조사를 통해 실제 어휘 사용 실태를 알아보고 연구에 참고 하였다.

친척 범주에서 ‘直系’에서는 ‘하르방’, ‘아방’, ‘어멍’과 같이 일차적 친척이라 할 수 있는 가족원을 중심으로 관련 어휘들의 형태와 의미를 먼저 살펴보았다. 직계혈족과 관련한 명칭들은 주로 기존 어휘에 머물지 않고 파생하여 ‘돌하르방’, ‘다슴아방’, ‘영등할망’, ‘삼승할망’ 등으로 활발히 활용되고 있었다. 이러한 평칭의 기능을 하고 있는 ‘直系’ 관련 어휘들은 주로 호칭보다는 지칭으로 사용함을 조사 과정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傍系’에서는 화자와 같은 향렬인 ‘형제’와 손윗사람인 ‘방계존속’, 손아랫사람인 ‘방계비속’으로 나누어 표준어와 비교하여 지역적 특성이 드러나는 어휘들을 주로 살펴보았다. 특히 ‘아지망’, ‘아지방’, ‘삼춘’, ‘큰아방’, ‘작은아방’ 등과 같이 방계 존속에 해당하지만, 평칭의 기능을 하는 어휘들이 화자보다 높은 연령이나 향렬임에도 지칭으로 자주 쓰인다는 점에서 서열이나 향렬 관련 어휘의 사용이 약화되고 연령을 고려하되 친숙하게 말하는 언어습관을 쉽게 볼 수 있었다. 또한 ‘삼춘’과 ‘아지망’, ‘아지방’ 등의 경우 본래 의미 범위에서 확대 사용되어 친척 범위뿐 아니라 이웃이나 가까운 비친척원에게도 쓰이고 있었다.

‘姻戚’ 관련 어휘로는 시가(媿家)에서는 주로 남편의 가족원에게 불편함 없이 자신

의 친척원에게 부르는 명칭을 평칭으로 그대로 사용하는 편이었다. 이는 시가를 구별하는 의식이 약화된 현상이 그대로 명칭 사용으로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다. 처가(妻家)의 경우 시가(媿家)와 큰 차이를 발견할 수는 없었으나 고어의 형태인 ‘가시아방’과 ‘가시어멍’이 고령층 사이에서는 ‘丈人’, ‘丈母’의 대표적 지칭어로 쓰이고 있었다. 그러나 세대가 바뀔에 따라 현재 ‘가시아방’과 ‘가시어멍’은 그 세력이 약화되어 구어로는 잘 쓰이지 않는 실정이다.

전체적으로 제주 방언의 친척 명칭은 각각 다른 대상이라 할지라도 중복되어 쓰이는 어휘들이 많았다. 특히 화자가 지칭 대상이 없는 상황에서 제3자에게 지칭할 경우 중복되는 어휘로 혼란이 예상될 때 제주 사람들은 주로 ‘애월 아지망’, ‘주희 삼촌’과 같이 친척 명칭 앞에 택호명이나 이름 등을 넣어 대화의 불편함이 없도록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었다.

분류하여 종합한 제주 방언 친척 명칭 중 개별적 어휘들을 가지고 통시적 관점에서 어휘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다시 말해 중세국어의 흔적이 남아 있는 제주 방언을 중심으로 친척 명칭의 어원을 살펴보고 의미와 형태에서 고어의 잔형이 남아 있거나 변모된 과정을 간단히 살펴보았다. 형태론적으로 살펴본 결과 고어의 형태인 ‘·’(아래아) 사용이 지금도 쓰이고 있었고, ‘아방’, ‘하르방’, ‘할망’과 같이 말음 ‘ㅇ’의 사용이 빈번함이 두드러졌다. 의미론적으로는 제주 방언의 친척 어휘 중 일부는 의미 범위가 親戚 범위를 넘어 一般人 범위까지 확대되어 사용이 가능한 어휘들이 많았다. 물론 표준어의 ‘할아버지’, ‘할머니’, ‘아주머니’, ‘삼촌’, ‘형’ 등이 존재하지만, 제주 방언 ‘삼촌’이나 ‘성님’ 그리고 ‘아시’는 여성 관련 어휘로도 활발히 쓰인다는 특징이 두드러진다.

제주방언 ‘삼촌’은 지칭으로 伯叔父, 姑母 이외 부모 항렬의 친척원에게 두루 사용될 뿐 아니라 자신보다 연령이 높은 이웃까지 사용할 수 있다. ‘삼촌’의 대응되는 표준어 ‘삼촌’의 경우 친척 범위에서부터 결혼 여부에서 미혼인 부모의 남자 형제들만 적용될 뿐 아니라 남성에게만 해당하나 제주 방언의 ‘삼촌’은 촌수와 성별과 상관없이 거의 자신의 삼촌 항렬의 연령대의 사람에게는 누구나 사용해도 무방할 만큼 사용 범위가 매우 넓은 편이다. 특히 성별의 제약이 없음은 이미 현기영의 문학작품인 「순이삼촌」(1978)을 통해서도 흔히 알려져 있는데, 외지 사람들에게는 등장인물인 ‘순이삼촌’이 여성이라는 사실이 꽤 흥미로운 부분이다. 제주에서 쓰이는 ‘삼

춘'이 가리키는 대상이 여성일 경우 그저 '삼춘'이라 부르는 경우도 있고 '여펜삼춘'이라 하기도 한다.

'성님'의 경우 표준어 '형님'과 비교하여 동성(同姓) 간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은 같으나 여성 사이에서도 부르고 지칭할 수 있다는 점이 독특하다. 이는 앞서 본 '삼춘'과 동일한 조건의 범위이다.

또한 표준어 '아우'와 대응되는 '아시'의 경우 여성 간 손아랫사람에게 쓸 수 있을 뿐 아니라 남편의 동생까지 부를 수 있다. 이는 표준어에서 남편의 남동생에게 '도련님'이나 여동생에게 '아가씨'라 부르는 것과 달리 편하게 지칭으로 아시라 이르거나 이름을 부르는 경우가 흔하다. 이는 사회언어학적 관점에서 촌락내혼(村落內婚)의 배경에서 오랜 시간 남편의 동생과 가깝게 지낸 영향으로 시가(媿家)를 구분하는 환경의 영향이 크지 않아 격식을 차리지 않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연구 대상으로 삼은 제주 친척 어휘는 선행 연구된 자료와 현장 조사를 통해 수집하였으나 객관성을 확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는 가족 관계와 지역적 친척 명칭의 사용 방식의 개인적 차이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계를 고려해도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제주 방언의 친척 명칭에서 고어의 형태가 지금도 남아 있는 어휘가 많아 국어 친척 명칭의 어원을 연구하고 그 가치를 밝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제주 방언의 친척 어휘들을 살펴볼 때 표준어와 비교하여 지역성을 찾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았다. 특히 친척 관련 어휘들 대부분 한자어 사용의 비중이 큰 표준어에 비해 제주 방언은 고유어의 사용이 많음을 찾을 수 있었다. 이는 언어가 사회상을 반영한다는 것을 토대로 볼 때 제주 지역이 오래전부터 타지(他地)의 양반중심 사회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아 사회 계층화가 크지 않았음을 짐작하게 한다.

제주 방언이 타지(他地)와 다르게 이러한 고어의 형태를 보존할 수 있었던 것은 제주의 환경적 여건으로 인한 제주 사람들의 삶의 고립성이 가장 큰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시대적 변천으로 많은 영향을 받은 타지와 달리 제주는 가족과 친척 그리고 같은 지역 내의 사람 간에 강한 결속력으로 제주만의 차별화된 사회언어학적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언어학적 가치가 뛰어난 제주 친척 명칭이 시간이 지날수록 제주 가족사회의 구조 변화와 표준어 강화의 사회적 인식의 변화 등에 의해 그 사용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 연구는 제주 방언의 친척 명칭의 가치를 인식하고 강조하는 것에서 의의를 두고자 한다.

## <참고 문헌>

### □ 자료

- 강영봉 외(2009), 「제주어사전」(개정증보판), 제주특별자치도.  
고재환(2013), 「제주속담사전」(개정증보판), 민속원.  
국립국어원(1992), 「표준화법해설」.  
국립국어원(1999), 「표준국어대사전」.  
국립국어원(2013), 「2013 제주 지역어 전사 보고서」.  
남광우(1971), 「고어사전」, 一潮閣.  
박용후(1988), 「제주방언연구 (자료편)」, 고려대민족문화연구소.  
신기철 외(1985), 「새우리말 큰사전」, 삼성출판사.  
조선총독부(1920), 「朝鮮語辭典」.  
진성기(2008), 「탐라어로 따낸 제주도 옛말사전」, 제주민속연구소.  
홍윤표 외(1995), 「17세기 국어사전(上,下)」,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대학사.  
한글학회(1997), 「우리말 큰사전」, 어문각.

### □ 단행본

- 강정희(1988), 「제주 방언 연구」, 한남대학교출판부.  
\_\_\_\_\_ (2005), 「제주 방언 형태 변화 연구」, 역락.  
고영근·구본관(2008), 「우리말 문법론」, 집문당.  
김광해(1993), 「국어 어휘론 개설」, 집문당  
김계곤(1996), 「현대 국어의 조어법 연구」, 박이정.  
김중훈(1984), 「국어경어법연구」, 집문당.  
김태곤(2008), 「국어 어휘의 통시적 연구」, 박이정.  
김혜숙(1999), 「제주도 가족과 켄당」, 제주대학교 출판부, 제주연구총서4.  
고재환(2011), 「제주어개론(上)」, 보고서.  
류재봉(1997), 「호칭과 지칭 예절」, 예영커뮤니케이션.

- 문순덕(2003), 「제주 방언 문법 연구」, 세림.
- \_\_\_\_\_ (2014), 「제주 방언의 그 맛과 멋」, 보고서.
- 성낙수(1992), 「제주도 방언의 통사론적 연구」, 계명문화사.
- 이무영(1994), 「예절 바른 우리말 호칭」, 여강
- 양영희(2015), 「사회언어학 관점에서의 국어 호칭어 사적 전개 양상 연구」, 역락.
- 이승녕(1985), 「제주방언의 형태론적 연구」, 국어학연구총서 5, 탑출판사.
- 임지룡(1995), 「국어 의미론」, 탑출판사.
- 조항범(1996), 「국어 친족어휘의 통시적 연구」, 태학사.
- 최재석(1979), 「濟州島의 親族組織」, 일지사.
- 현용준(2009), 「제주도 사람들의 삶」, 민속원.
- 현평효(1985), 「제주도방언연구(논고편)」, 이우출판사.

#### □ 논문

- 강신항(1976), “경북 안동·봉화·영해 지역의 이중 언어생활”, 「성균관대학교 인문사회계 논문집」, 제22집, 성균관대학교 인문사회학회.
- 강영봉(1995), “제주도방언의 어휘론적 연구”, 「탐라문화」, 15,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 강희숙(2002), “호칭어 사용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분석”, 「사회언어학」, 제10권 1호 1~24, 한국사회언어학회.
- 김규선(1987), “국어 친족어의 연구”,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미정(2010), “제주도 방언의 친족어휘 고찰”,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순자(2011), “제주도방언의 언어지리학적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태곤(1984), “朝鮮時代 親戚名稱攷”, 「語文論集」, 17, 중앙대학교 국어국문학과.
- \_\_\_\_\_ (2007), “‘아자비’와 ‘아자미’의 변천 연구”, 「언어학연구」, 12, 한국 언어연구학회.
- 박갑수(1989), “국어호칭의 실상과 대책”, 「국어생활」, 제19호, 국립국어연구원.
- 박은용(1979), “한국어의 친족호칭에 대하여”, 「女性問題研究」, 8, 호성 여자대학교 부설 한국여성문제연구소.

- 박정운(1995), “한국어의 호칭어 체계”, 「사회언어학」, 5-2호, 한국사회언어학회.
- 손준섭(2010), “현대국어 호칭어의 유형과 특성에 대한 연구”, 「한국어의미학」, 33, 한국어미학회.
- 왕한석(1988), “한국 친족용어의 내적 구조”, 「한국문화인류학」, 20, 한국문화인류학회.
- \_\_\_\_\_ (1992), “한국 친족호칭체계의 의미기술”, 「한국문화인류학」, 24-1, 한국문화인류학회.
- 이기문(2005), “雞林類事의 '姑曰漢了彌'에 대하여”, 「국어학」, 통권 제45호, 국어학회.
- 최규일(1986), “한국어의 친척호칭 어휘 연구 (1)”, 「국어교육」, 55, 한국어교육연구회.

<Abstract>

# A Study on Relative Names in the Jeju Dialects

Park, Min-kyoung

A major in Korean Language and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Kim, Tae-gon

This study synthetically collected relative names in the Jeju dialects shown in the Jeju family organization, and then classified them in the type of linear blood relatives, collateral blood relatives and relatives by marriage. Finding individual words with the trace of archaic words among relative names in the classified Jeju dialects, they were analyzed in the aspect of semantics and word-formation.

Through the representative words of relative names of Jeju such as, 'samchun', 'asi' and 'seongnim' shown in the process of classification, it is possible to find the social/cultural background in which the paternal principle is not the only one emphasized in daily life even when the paternal principle is the basis. Even though the Jeju dialects, 'samchun(uncle)', 'asi(younger brother)' and 'seongnim(older brother)' are the relative names representing

men, they are also commonly used for women, so that it is not limited by 'sex'.

Moreover, some of the words among relative names of the Jeju dialects could be a lot used for 'ordinary person' exceeding the range of 'relative' due to the expansion of functions of meaning. Of course, it also has the standard language such as 'grandfather', 'grandmother', 'aunt', 'uncle' and 'younger brother'. However, it is unique that the Jeju dialects, 'samchun', 'seongnim' and 'asi' are actively used between women.

On top of the expanded range of meanings of such relative words, the humble names are frequently used in the relative names of the Jeju dialects. Even when the person's generation in the family tree is higher than the speaker, the humble words such as 'ajibang', 'ajimang', 'samchun' and 'orabang' are commonly used.

Since they are not limited by 'sex' and 'generation in the family tree', there are lots of relative names of the Jeju dialects used for overlapping cases even when they belong to different family lines. For example, 'ajubang', the name of a collateral line, used by female speakers is also used for the brothers of husband in the same way. Contrary to 'doryeonnim' and 'ajubeonim' sticking to formality in the standard language, the Jeju dialects indicate them with names or humble names. Sinc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peakers and the relatives is very close as a lot of families are living together in a region of Jeju, they are comfortably used with no division of family lines.

In order to prevent the confusion over who is called or indicated by duplicated words in several family composition, Jeju people are naturally using the 'name of household' or 'name' in front of the relative names such as 'Hagui seongnim' and 'Myeonghee samchun' for the convenience of conversation.

The relative names of the Jeju dialects have not much limitations on the use of meanings. In the aspect of word forms, moreover, a lot of relative words still show the trace of middle Korean, which has the excellent linguistic value.

When the use of the standard language is expanded, in this aspect, it would be necessary to record the Jeju dialects in a book and also inform the academic value before they disappear.

This study aimed to not only reveal the linguistic characteristics of the Jeju dialects, but also emphasize the value of preservation through relative names mostly used in daily life of Jeju.

<부록> 설문지

제주 방언의 친척 명칭 연구 관련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대학원생으로 석사학위 논문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제주에서 특별히 제주 방언은 국어 연구에 있어 중요한 자료이자 보존 가치가 뛰어난 우리 유산입니다. 그러나 표준어 사용 인식 강화, 타지역 사람들의 제주 정착 등의 여러 요인으로 제주 방언은 점차 사라져가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귀중한 제주 방언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제주 방언 자료를 수집하고 그 의미를 이해하는 것도 보존 방안 중 하나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 설문지는 현재 제주 방언의 친척 관련한 사용 어휘를 알아보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평상시에 사용하는 방언 그대로 응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연구의 목적 외에는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설문지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 또는 질문사항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바쁘신 중에 귀한 시간을 내어 설문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5년 3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과

연구자 : 박 민 경 (H.P 010-9180-5318)

E-mail : mkinruach@naver.com

이름:

나이/성별:

가족관계:

제주거주기간:

1. 다음은 귀하의 직계 혈족을 부를 때 쓰는 어휘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일 많이 사용하는 호칭에 정확하게 체크해 주십시오 (중복 체크 가능)

<직계 혈족>	
아버지 (父)	① 아버지 ② 아방 ③ 아바지 ④ 아뻘 ⑤ 아버지님 ⑥ 기타
어머니	① 어머니 ② 어명 ③ 어마니 ④ 어뻘 ⑤ 어머니님 ⑥ 기타
할아버지	① 할아버지 ② (성, 친) 하르방 ③ 하르바지 ④ 하래비 ⑤ 하르뻘 ⑥ 기타
할머니	① 할머니 ② (성, 친) 할망 ③ 할마님 ④ 기타
증조 할아버지	① 증조 할아버지 ② 왕할아버지 ③ 왕하르방 ④ 기타
증조 할머니	① 증조 할머니 ② 왕할머니 ③ 왕할망 ④ 기타
아들	① 아들 ② 아덜 ③ OO아방 ④ 나들-놈 ⑤ 당-아들 ⑥ 기타
딸	① 딸 ② (딸) 년 ③ OO어명 ④ 딸-애기 ⑤ 당-딸 ⑥ 기타
며느리	① 며느리 ② 메노(누)리 ③ 며늘아기 ④ 기타
사위	① 사위 ② 사우 ③ O서방 ④ 기타
손자	① 손자 ② 손지 ③ 당손지 ④ 진손지 ⑤ 기타

2. 다음은 귀하의 방계 혈족을 부를 때 쓰는 어휘에 관한 내용입니다. 귀하의 성별에 맞게 자주 사용하는 호칭에 체크해 주십시오 (중복 체크 가능)

<방계 혈족>	
형	① 형(님) ② 성(님) ③ 기타
형수	① 형수(님) ② 아주마님(아지마님) ③ 아주망(아지망) ④ 기타
남동생	① OO아방 ② 오래비 ③ 아시 ④ 동생 ⑤ 동승 ⑥ 동싱 ⑦ 오라방 ⑧ 오랍-동생 ⑨ 기타
제수	① 제수 ② 아주망(아지망) ③ OO어명 ④ 아시각시 ⑤ 기타
여동생	① OO어명 ② 아시 ③ 누이동승 ④ 누이동싱 ⑤ 누이동생 ⑥ 기타
매제, 매부(여동생의 남편)	① 동생(동승,동싱) ② 아주방(아지방) ③ 아시서방 ④ OO아방 ⑤ 기타
누나	① 누나 ② 누님 ③ 기타
자형, 매형(누나의 남편)	① 매형 ② 성님(형님) ③ 기타
오빠	① 오빠 ② 오라바님 ③ 오라버니 ④ 오라뻘 ⑤ 오라비 ⑥ 기타
언니	① 언니 ② 성님 ③ 기타
형부(언니의 남편)	① 형부 ② 아지바님 ③ 기타
고모	① 고모 ② 삼촌 ③ 기타
고모부	① 고모부 ② 삼촌 ③ 기타
백부(아버지의 형, 큰아버지)	① 큰아버님 ② 삼촌 ③ 큰아방 ④ 기타
백모(아버지의 형수, 큰어머니)	① 큰어머님 ② 삼촌 ③ 큰어명 ④ 기타

숙부(아버지의 남동생, 작은 아버지)	① (셋·말쭉·죽은) 아버지 ② (셋·말쭉·죽은)아방 ③ 삼촌 ④ 기타
숙모(아버지의 제수, 작은 어머니)	① (셋·말쭉·죽은) 어머니 ② (셋·말쭉·죽은) 어멍 ③ 여펜삼촌 ④ 삼촌 ⑤ 기타
조카 (형, 동생의 자녀)	① 조카 ② 조케 ③ 초케 ④ 기타

3. 다음은 귀하가 남성일 경우에만 답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배우자 및 관련된 가족을 부를 때 쓰는 어휘에 관한 내용입니다. 해당질문에 가족관계가 없을 경우 넘어가시면 됩니다. (중복 체크 가능)

<처가 호칭>	
아내	① 각시 ② 아내 ③ 만누라 ④ 아의-어멍 ⑤ 기타
장인	① 장인어른 ② 가시아방 ③ 가시아비 ④ 기타
장모	① 장모님 ② 가시아멍 ③ 가시아미 ④ 처어미 ⑤ 기타
처형(아내의 언니)	① 처형 ② 처아주망(처아지망) ③ 처아지마님 ④ 기타
처제(아내의 여동생)	① 처제 ② 아주망(아지망) ③ 기타
처남(아내의 남동생)	① 처남 ② 아시 ③ 기타
처남댁(처남의 부인)	① 처남댁 ② 아주망(아지망) ③ 처남각시 ④ 기타
처남(아내의 오빠)	① 처남 ② 성님(형님) ③ 기타
처남댁(아내 오빠의 아내)	① 아주머니 ② 아주마님/아지마님 ③ 기타
동서(아내 형제의 남편)	① 형님(손윗)/ 동서(손아래) ② 성님(손윗)/ 동세(손아래) ③ 기타

4. 다음은 귀하가 여성일 경우에만 답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배우자 및 관련 가족을 부를 때 쓰는 어휘에 관한 내용입니다. (중복 체크 가능)

<시가 호칭>	
남편	① 남편 ② 남편 ③ 바깥- 양반 ④ 서방 ⑤ OO아방 ⑥ 기타
시아버지	① 아버님 ② 시아방 ③ 시아바님 ④ 시아버지 ⑤ 기타
시아머니	① 어머님 ② 시어멍 ③ 시어마님 ④ 시어머니 ⑤ 기타
시아주버니 (남편의 형)	① 시숙 ② 시아주바님(시아지바님) ③ 시아주버니 ④ 기타
동서 (남편 형의 아내)	① 형님 ② 성님 ③ 기타
시누이 (남편의 누나)	① 형님 ② 성님 ③ 씨-누의 ④ 기타
시매부 (남편 누나의 남편)	① 아주버님 ② 아주바님(아지바님) ③ 씨- 아주방(씨-아지방) ④ OO아방 ⑤ 기타
시누이(남편의 여동생)	① 아가씨 ② 죽은시누이 ③ OO어멍 ④ 기타
시매부 (남편 여동생의 남편)	① 서방님 ② 아주방(아지방) ③ 죽은시누이서방 ④ 기타
시숙(남편의 남동생)	① 도련님(미혼)/ 서방님(기혼) ② 시아주방(시아지방) ③ OO아방
동서 (남편의 남동생의 아내)	① 동서 ② 동세 ③ 아시 ④ 기타

설문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